

자 율 형 사 립 고  
**보인고등학교**  
 BOIN HIGH SCHOOL

05742 서울 송파구 오금로 49길 18  
 Tel : 02-2043-6021 · Fax : 02-449-8063  
<http://www.boin.hs.kr>

2017年11月10日

BOIN HIGH SCHOOL MAGAZINE

# Play Boin

Vol. 19



**BOIN INTERVIEW** | 채성민, 류신형, 문지혜 선생님

**BOIN FUN** | 1학년 수련회, 2학년 수학여행

**BOIN STORY** | SCIENCE, TECHNOLOGY, SOCIETY, MUSIC, SPORTS

**BOIN NEWS** | 보인고 출신 축구 선수 최철순 동문(96회 졸업) 장학금 기부



열정이 넘치는 학교 · 학생이 행복한 학교 ·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학교

# 자율형사립고 보인고등학교입니다



# CONTENTS

## MESSAGE

- 04 신년사 | 이사장 김석한
- 06 격려사 | 이사장 김석한
- 07 발간사 | 교장 김종환

## BOIN INTERVIEW



- 08 동문회 이모저모 | 보인고 총동문화장님, 사무총장님
- 12 다가서기 ① | 채성민 선생님 인터뷰
- 14 다가서기 ② | 류신행 선생님 인터뷰
- 18 다가서기 ③ | 문지혜 선생님 인터뷰
- 22 다가서기 ④ | 김희중 선생님 인터뷰
- 24 동아리 탐방기사 ① | 경제동아리 CIS 인터뷰
- 27 동아리 탐방기사 ② | 토론동아리 에센시아 인터뷰

## BOIN FUN



- 30 1학년 수련회 이모저모 | 고등학교 첫 수련회
- 34 2학년 수학여행 이모저모 | 부산
- 38 사이언스 컬처로드 ① | 전라도 탐방
- 39 사이언스 컬처로드 ② | 천문대 견학
- 40 탐방기 | 육군사관학교 방문기
- 42 체험 | 진로체험기사
- 44 봉사활동 ① | 농촌 봉사활동
- 46 봉사활동 ② | 꽃동네 봉사활동
- 48 대회 ① | 대주 토론대회 1학년 우승팀 인터뷰
- 49 대회 ② | 별들의 전쟁! 1학년 TED대회
- 50 대회 ③ | 독서 골든벨
- 51 대회 ④ | 학교 스포츠 클럽

## BOIN STORY



- 52 SCIENCE ① | 블랙홀
- 54 SCIENCE ② | 생활 속의 과학 원리
- 55 SCIENCE ③ | 수면
- 56 SCIENCE ④ | 집중력을 높이자
- 57 TECHNOLOGY ① | SK하이닉스
- 58 TECHNOLOGY ② | 태블릿
- 59 TECHNOLOGY ③ | 인공지능
- 62 TECHNOLOGY ④ | 아리수
- 64 SOCIETY ① | 저출산
- 66 SOCIETY ② |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무엇이 다른가?
- 68 MUSIC ① | 계절에 따라 골라듣는 재미가 있는 명곡 LIST
- 70 MUSIC ② | 계절별 듣기 좋은 음악 추천
- 72 SPORTS ① | 이승엽 선수의 은퇴 투어
- 74 SPORTS ② | 손흥민 그리고 이승우

## BOIN NEWS

- 76 장학금 기부 | 최철순 현 축구선수
- 78 양케이트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82 교내 백일장 대회 | 2017학년도 1,2,3학년 백일장 장원 작품 모음
- 89 충무공 김시민 장군 탄신기념 | 제1회 전국 청소년 통일 문예작품 공모전 작품
- 91 교지편집부 후기

# 보인교육 변화의 힘

## 열정과 신뢰 그리고 소통과 협력

### 교직원에게 보내는 이사장님의 신년사

다가올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단순하고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한 내적 성찰과 반성, 협력과 협치, 신뢰, 소통을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노력으로 특정 부서를 발전시킬 수 있고, 역시 소수의 노력으로 단기간 가시적인 학교 발전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의 주인 의식, 모두의 참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 내는 지속적인 학교발전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로 2017년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발생했던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이야기 나누는 연말연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보인가족 모두도 지난 시간에 대한 평가 속에서 2018년 무술년에 대한 의미와 희망을 찾았으면 합니다. 기대성과에 미치지 못한 교육활동의 원인을 파악 해 보는 일은 감추고 싶은 상처를 들춰내는 것처럼 불편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교육 상황이 녹록치 않기에 불편하다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주지하듯 2018년 교육 정책 변화는 학교의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볼 것인가?

정치논리에 의한 원칙 없는 정책 변화를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칩니다. 외적 정책변화에 상관없이 고객만족이란 근본 방향 이행에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평가와 대응전략 수립의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바꾸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마다 새롭게 발전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특정 개인과 부서로만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 돌과구를 모색할 때는 너와 나를 구분하고 부서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목표를 향해 '협력과 협치'를 실천하는 성숙함이 절실한 때입니다.

눈부신 성장과 발전 속에서 보여주었던 협력과 화합의 정신이 퇴색하진 않았는지 모두 돌아봅시다. 현재의 위치에 만족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목표와 인재육성의 방향설정에서 미흡함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평가해 봅시다. 그토록 경계했던 매너리즘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봅시다. 소수 의견이라도 학생 학부모의 평가에 귀 기울여 봅시다. 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와 분석에서 나는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지 않은지 냉정히 바라봅시다. 어떤 개인적 교육목표와 도전정신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이야기 나눠 봅시다.

모두가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 주체가 되어 나와 학교의 상황을 분석합시다. 한 개인의 의지로 학교는 변하지 않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안 없는 비난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학교는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평가와 분석의 결과가 너, 나 구분 없는 '협력과 협치',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활동으로 실천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보인의 문화로 정착되면 보인교육의 뿌리는 더욱 깊숙이 학생 학부모의 마음속을 파고 들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 간의 '협력과 협치', '소통'이 학교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근본입니다. 저는 특정 개인과 특정 부서의 발전이 아닌 보인교육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과 의지를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협력과 협치', '소통', 그리고 '신뢰'를 강조할까요?

저는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경영인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여러분들보다 4차 산업

# 공약신년

모두 성공하시길  
한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혁명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큼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인재 교육에 대해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와 논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이 불러올 미래사회의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에 대한 전망과 분석에 너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시대나 인간 사회의 근간을 이루어 온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소홀합니다. 바로 '협력과 협치', '신뢰', '소통'입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유명인 중 한 명은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4차 산업혁명이 핵심의제로 선정되기도 전인 2014년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슴 속 열정을 바탕으로 일한다. 우리는 믿는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때, 정부가 우리를 신뢰할 때, 고객이 우리를 신뢰할 때, 주주들이 우리를 신뢰할 때, 생존은 오직 그 때 가능하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기업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나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다. 나는 이를 중국정부와의 소통으로 극복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꾸준히 경청하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 발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키워드는 ‘열정’, ‘신뢰’, ‘소통’, 그리고 ‘협력’이었습니다.

교육 환경도 4차 산업 혁명 못지않게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쫓아갈 것은 쫓아가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는 품고 갑시다. 모두가 ‘열정’, ‘신뢰’, ‘소통’, ‘협력’의 마인드로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합시다.

‘열정’은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살피우는 동기가 됩니다.

‘신뢰’는 나와 동료, 나와 학생·학부모를 더욱 끈끈한 보인가족으로 묶어주는 동력이 됩니다.

‘소통과 협력’은 앞으로 다가올 교육변화의 파고를 극복할 보인의 저력이 됩니다.

특히, 2018년은 자율형 사립고에 위기가 옵니다. 그동안 위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명하게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 위기가 보인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저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얼마 전 남녀 뇌구조의 차이가 교육성취에서 유의미한 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는 교육기사를 읽었습니다. 뇌과학연구소 마이클 거리언 소장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방적 강의식 수업은 언어 능력이 우수한 여학생들에게 유리하고 모험과 탐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에게는 흥미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에 착안해 국어 수업을 축구 게임처럼 설계하고 드래프트나 트레이드 방식을 활용해 학생들의 참여와 성취를 높인 중학교 수업사례도 함께 소개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특성은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교수법이 변화하는 시대환경과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낡은 교수법을 고수하는 것이 전문성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수만큼 다양한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학습 성취를 높이는 보인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별 선생님들의 자기개발 노력에 더해 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연구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신년사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올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단순하고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한 내적 성찰과 반성, 협력과 협치, 신뢰, 소통을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노력으로 특정 부서를 발전시킬 수 있고, 역시 소수의 노력으로 단기간 가시적인 학교 발전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의 주인의식, 모두의 참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 내는 지속적인 학교발전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그 어떤 요구도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을 믿습니다.

항상 학교를 위해 애 써주시는 교직원들을 위해 내년부터는 해외 연수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인정되면 선생님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복지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니 학교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  
모든 교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개인의 성장과 학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법인 대주학원 이사장 김 석 한



# 미래를 선두할 보인을 위해..

미래 사회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할까요? 학교수업뿐만 아니라 깊고 다양한 사고, 창의적 활동,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얻게 된 Input을 Output으로 전환시킬 줄 아는 인재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동하는 능력이 뛰어난 인재입니다. 바른 인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들 수 없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겠죠.



세계 경제의 흐름과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일상 속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속한 변화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속도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매일 학업에 힘쓰고 있을 우리 학생들은 어떤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로 미래 사회를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 Fast Follower보다는 First Mover가 되길!

20세기 고도 산업사회는 변화를 주도했던 극소수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생존했던 소수가 세계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구현할 미래 사회의 모습은 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도저히 뒤쫓을 수 없는 사회 변화 속도는 First Mover가 기회를 독점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 보인의 학생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보다 경제 사이클이 앞선 일본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인재라 할 수 있는 의사와 변호사의 과잉공급 문제에 직면 해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학문 분야의 급속한 성장은 전통적인 직업 위계의 틀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보인의 학생들이 이런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와 현재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날로 새롭게’를 실천하는 보인의 모든 학생들이 미래 지향적 사고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First Mover가 되길 희망합니다.

## 바른 인성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들로 성장하길!

그렇다면 미래 사회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할까요? 학교수업뿐만 아니라 깊고 다양한 사고, 창의적 활동,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얻게 된 Input을 Output으로 전환시킬 줄 아는 인재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동하는 능력이 뛰어난 인재입니다. 바른 인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들 수 없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겠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변화와 혁신도 어찌 보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부터 비롯되기에 바른 인성 함양은 보인의 교정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내 주변에서 이웃과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세계경제가 하나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과 사고도 세계를 향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은 보인의 교육활동이 여러분들을 미래를 주도할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 사회가 보인의 인재들이 막중한 역할을 펼칠 운동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제대로 자랑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교지가 가득 채워지기를 응원하면서 격려사를 마칩니다.

학교법인 대주학원 이사장 김석한



## 꽃보다 아름다운 보인

지난 봄, 교정을 돌다 발견한 이름 모를 풀꽃 한 송이의 생김새가 지금도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본관 출입구의 벽과 바닥이 만나는 그 좁은 틈바귀에 뿌리를 내리고, 별을 향해 줄기를 틀고, 한껏 꽃받침을 들어올려, 기어이 피워낸 하얗고 여린 마음이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일 환파가 몰아치는 지금도 저는 교정에서 꽃을 발견합니다. 이번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저마다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꽃 무더기입니다.

칼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등꽃길을 오르고, 자신의 목소리로 생각을 말하고 나누며, 잔디구장을 가로질러 땀을 흘려가며 공을 차고, 식판의 음식을 씹씹 비워 한 그릇씩 더 담아 먹으며, 졸린 눈을 부비며 스탠딩 책상에서 책장을 넘겨 밤을 밝히는 꽃. 여러분, 우리 보인의 학생들입니다.

꽃은 한순간에 피지 않지요. 아주 서서히, 조금씩, 그러다 문득, 마침내, 끝끝내 꽃은 필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성장을 단번에 보여주지는 않지요. 순간들이 모여 끈기와 만나면, 잠재력이라는 꽃망울이 터지고 꿈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꽃가지가 뻗쳐올라 희망의 향내가 보인고 교정에 진동할 때쯤, 저와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졸업생이라고 부릅니다.

2017년 9월, 교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갑니다. 업무를 처리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매일 아침 우선순위로 새기는 저의 일은, 교정에서 마주하는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행복을 살피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 않고 새로움으로 마주했으며, 열정과 사랑의 힘으로 명문고의 반열에 우뚝 선 우리학교의 역사를 함께 해 왔기에 지금 교장으로서의 역할에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정에서 만나는 이, 누구 하나 행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고 살피겠습니다. 저에게도 행복을 물어주시면 당신의 행복이라 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인 가족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발간사를 마치려 합니다. 원고를 내 주시고,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지편집부 학생들과 지도 선생님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우선순위로 새기는 저의 일은, 교정에서 마주하는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행복을 살피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 않고 새로움으로 마주했으며, 열정과 사랑의 힘으로 명문고의 반열에 우뚝 선 우리학교의 역사를 함께 해 왔기에 지금 교장으로서의 역할에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정에서 만나는 이, 누구 하나 행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고 살피겠습니다. 저에게도 행복을 물어주시면 당신의 행복이라 답하겠습니다.

보인고등학교 교장 김중환



장학금 기부한 보인고총동문회장 **이홍재** 선배님

## 보인고 동문회장님과의 따뜻한 만남, 그리고 장학금 기부

**이홍재** 선배님,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들은 교장·교감 선생님을 존경하자.”

이홍재(63세, 보인고총동문회장, 32회 졸업) 선배님은 모교(母校) 보인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다. “불우한 환경에서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비에 여념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부를 진행했다”며, “동문 여러분들이 기부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고 밝혔다.



항상 보인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부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인고등학교 선배  
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자 교집편집부  
PLAYBOIN이 올해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  
하신 보인고총동문회장 이흥재 선배님을 만  
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신  
손철원 선배님도 함께 오셨기에 같이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글 | 20207 김성훈 20125 이승재

보인상고 32회 졸업생이신 이흥재 선배님은, 졸업 후에 바로 군대를 가셨다. 그리고 특전사에 가신 후 공수부대를 나오셨다. 제대를 하신 후에는 아버지의 개인 사업인 목재 회사를 유산으로 물려받으셨다. 목재 회사에서 대표로 10여년을 하시다가 한국 화훼협회 총무이사로 근무하셨고 현재 대부종합건설 회사 회장으로 계신다.

선배님은 작년 3월 8일 13대 총동문회장에 취임을 하셨다. 선배님은 총동문회의 슬로건이 화합 즉, “하나가 되는 총동문회”라고 하였고 “사무총장 이하 수석부회장, 감독위원장, 임원들이 90명이 되는데 모든 임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화합하고 있다”고 하셨다. 선배님은 2008년 보인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르셨고 또한 건립기금 모금 운동을 하심으로써 현재의 동문회 사무실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셨다. 올해 2018년 6월 8일은 보인고등학교 개교 110주년이다. 이에 선배님은 개교 100주년 행사를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하고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다. 또 필히 총동문회를 장학재단으로 설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다. 선배님은 “총동문회장의 역할은 선배를 공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며 또한 모교의 발전을 위한 총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모교가 없이는 총동문회도 없고 선후배간의 공경과 사랑이 없는 총동문회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에 하나로 뭉치기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다.

11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보인고등학교는 1908년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기에 태동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며 오늘날 명문 보인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보인고등학교의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자랑거리 첫째는 명문 고등학교로 거듭나게 해주신 김석한 재단 이사장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선배님은 1년 선배이신 김석한 재단 이사장님을 정말 존경하신다고 하셨다. “우리 모교를 오늘날 이렇게 훌륭하게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하셨다. 둘째로는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 후배라고 하셨다.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 명문대 진학률이 높으며 작년에는 86% 인서울이라는 대단한 진학률을 보여 주셨다고 하셨다. 셋째로는 보인고의 위상을 널리 알린 축구부를 말씀하셨다. 선배님은 재작년에 축구 후원장을 하셨다. 축구 후원장을 하시면서 보인고등학교가 전국 축구 5관왕을 달성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선배님께서 작년에 감격스러우셨던 보인고등학교 대통령금배 축구 대회 우승도 말씀해 주셨다. 선배님은 “앞으로 총동문회에서 모교의 축구 시합에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축구도 명문이 됐고 진학률도 명문이 됐고 현재 후배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보인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앞장서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우리 학교에 많은 장학금을 기부하고 계신다. 선배님께서도 이에 대해 “불우한 환경에서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뜻있는 분들이 모여 장학회를 결성하였고 지금도 어려운 여건하에 공부하려는 후배들을 위하여 학비에 여념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문여러분들이 기부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선배님은 총동문회 임기가 끝나도 장학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다. 또한 총동문회에 장학재단을 세워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다.





선배님께서 우리 학교 후배들에게 꼭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은 “인생은 60살 전에는 놀지 말아야 한다. 60살이 넘어서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봤을 때 놀아보는 것이다.”라고 하셨고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인성’이었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선생님들을 공경해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학교가 명문이나 아니냐는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을 얼마만큼 존경하고 어렵게 생각하느냐, 또 학생들은 선생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존경하고 어렵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선배님은 후배들이 “첫째는 11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고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둘째는 누구나 그러하지만 원대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황금 같은 학창시절을 단지 공부에만 전념하지 말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또 장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라”고 하셨습니다. 선배님은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즉, 과를 선택할 때 인기 있는 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후배들이 커다란 자신만의 꿈을 갖기를 바라고 셋째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모든 일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끝으로 “후배들도 졸업하면 동문이 됩니다. 보인고등학교라는 모교가 있으므로 보인총동문회가 있는 것입니다. 졸업하더라도 총동문회와 함께 모교사랑 잊지 마시고 또한 후배사랑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 손철원 선배님, “동문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내가 책임진다”

손철원(62세, 사무총장, 33회 졸업) 선배님은 졸업 후에 대우 그룹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셔서 다시 대우 그룹으로 복직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극동 점유, 현재의 현대오일뱅크에 입사를 하

서서 10여년을 다니셨다. 연세가 40대가 안되셨을 때에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보인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일을 맡고 계신다.

선배님은 사무총장 역할 첫째가 동문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하셨다. 선배님은 연락이 안 되는 동문들을 찾아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 주시고 있다. 또 각 기수별 모임을 기수별 모임으로서 끝나지 않고 전체 동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와 행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은 총동문회장을 보필하는 역할이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학교 모교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동문들로부터 많은 장학 기금기부를 받아서 학교에 기부를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선배님은 “오늘 총동문회장 인터뷰이기 때문에 총동문회장 중심으로 인터뷰하라고 하셔서 여기까지만 인터뷰를 했다.

**후기 (20207 김성훈 20125 이승재)**

사회에서도, 학교를 잊지 않고 축구는 축구대로, 공부 공부대로 열심히 하는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명 받았습니다. 역사가 깊은 만큼 동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보인고등학교 동문회를 보면서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10년 역사가 되는 올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명문고에 다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선배님들의 바람을 꼭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리들의 성공을 후배들에게 꼭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을 통해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 학교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재 선배님 외에도 KPGO 장학회, 신성장학회, 조병국장학회, 김영선장학회, 신용환장학회, 보인원로회, 보인총동문회보리골프회, 보인총동문 임동수, 이재홍 선배님등 많은 분이 아낌없이 기부를 해주셨다. 후배들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선배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2017학년도 동문 장학금 수여자 명단>**

KPGO 장학회	김윤호(2학년 8반)
	권두환(2학년 7반)
	이학승(2학년 7반)
	이재백(2학년 1반)
	이해성(2학년 12반)
	최동욱(3학년 3반)
	김헌진(3학년 11반)
	김기삼(3학년 9반)
	우승원(1학년 3반)
	안영준(1학년 3반)
신성장학회	안성진(1학년 1반)
	신재민(1학년 11반)
	정진오(1학년 6반)
	김준형(1학년 7반)
	김건우(1학년 10반)
동문회장 이홍재	이윤재(1학년 5반)
	구본혁(1학년 8반)
조병국장학회	정광희(1학년 4반)
	김경민(1학년 12반)
김영선장학회	옥정민(1학년 10반)
	성주빈(1학년 11반)
	박범근(1학년 7반)
신용환장학회	최성준(1학년 8반)
	유현주(1학년 11반)
보인원로회	김규민(1학년 6반)
	김민서(1학년 1반)
보인총동문회보리골프회	유성호(1학년 10반)
	한찬영(1학년 11반)
보인총동문회 임동수	류연운(1학년 5반)
	보인총동문회 이재홍





영어와 달려보자,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채성민** 선생님

학교를 다니다보면, 선생님들께서 마라톤에 나간다는 것을 잠깐 들을 수 있다. 겉으로만 들던 마라톤 이야기들을 선생님께 직접 들어보자.

글 | 10120 이석희



마라톤처럼,  
수업을 이끌어간다.



**PLAYBOIN(이하 P) 교사가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채성민 선생님(이하 C)** 저는 진로 탐색을 해보면서 교사에 대해 알아보고, 교사가 어떤 직업인지를 누구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고등학생 시절에도 대부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내가 존경하고 싶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과는 달리 그냥 순전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교사가 되기로 했고, 다행히 고3 생활을 하면서 꿈이 변하지 않아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후회는 없어요.

**P 교사가 되는 과정 중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C** 특별한 일은 딱히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 한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때 당시만 해도 사립 고등학교에는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는데, 학교에서는 서울대를 많이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과를 가겠다”고 모의고사를 쓰든 진로를 쓰든 항상 써 왔는데, 담임선생님께서 불러서 “서울대 농대를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저는 3년 동안 교사가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가서 뭐합니까?”라고 얘기를 했다가, 담임선생님께 욕을 엄청 얻어먹었던 (웃음)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P 만약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택하셨을 다른 직업이 있으신가요?**

**C** 어... 운동선수를 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웃음) 사실, 선생님은 교사 이외에 직업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게 아니면 택했을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했고, 다행히 그 꿈이 바뀌지 않아서 이걸(교사들) 하게 됐는데, 이 직업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이걸 안 한다면 다른 직업을 뭘 할까에 대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사가 되고 나서부터 한 가지 생각은 있어요. 선생님이 되고 난 다음부터도 계속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통역과 번역을 공부하게 됐는데, 번역을 공부하면서 번역의 매력에 빠졌다고나 할까, 그래서 선생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하면서 하고 싶은 직업이나 일이 있다면 내 이름으로 된 번역서를 꼭 하나 내보고 싶다는 것이 선생님 꿈이고, 나한테 직업은 오직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P 마라톤을 시작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C** 사실 마라톤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철인3종 경기를 먼저 시작했어요. 철인 3종을 완주하기 위해서 마라톤은 당연히 뛰어야 하는 거니까 하게 됐는데, 철인 3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선생님이 예전에 담배를 자주 피웠어요. (흡연량으로는) 거의 우리 보인고에서 1, 2위를 다뤘던 것 같아요. 김보성 선생님이 가장 많이 피우든가 아니면 내가 가장 많이 피우든가. 근데, 건강상에도 정말로 안 좋다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쉬는 시간마다 조금 더 집중해서 수업 준비도 하고 여유를 가지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나는 무엇을 하면 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수영을 오래 했더라고요. 한 7~8년 정도? 그래서 그냥,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 한 번 해볼까?” 이러다가 철인 3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라톤도, 당연히 완주를 위해서 했던 것 같고, 참고로 최고 기록은 2시간 55분입니다.

**P 보인고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C** 우리 학교의 최고의 장점이 선생님은 항상 얘기하지만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수업시간이나 같이 있는 시간이 선생님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물론 내가 표현하는 것에는 인색하지만, 그래서 항상 좋은 학생이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보인고등학교가 정말로 다시 오고 싶은 학교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보인고 최고의 장점은 보인고 학생이라는 것을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인고 학생이 있기에, 보인고 선생님들의 열정도 안 식는 것 같고, 자랑스럽습니다.

# 수줍은 소년에서 어엿한 문학소년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형”  
**류신형** 선생님

어릴적 고향의 향수가 진하게 느껴지는  
류신형 선생님, 항상 친근한 말투로 재미  
있는 수업을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이 대  
해 알아보자

글 | 20621 유민재





**학교관련 질문**

**PLAYBOIN(이하 P)** 우선 류신형 선생님을 잘 모를 수도 있는 보인고 학생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류신형 선생님(이하 R)**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신형이라 하고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학기 때 문학을 가르쳤고, 2학기 땀 독서와 문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학년 4반 담임이기도 합니다. 국어선생님 중에서 가장 문학적이고, 2학년 남자선생님 중에서 가장 멋지고 잘생긴 선생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P**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학창시절에 장난 많고, 말쑥도 많이 피우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학창시절을 어떠셨나요?

**R**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질문지를 사전에 뽑아주셔서 미리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참 학창시절을 떠올리니까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학창시절에 약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구석에 앉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못 하지도 잘 하지도 않고 말도 없고 웃기도 없는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올라오면서 2차 성장을 겪으면서 키가 폭발적으로 크기 시작하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친형이 장난기가 많고 웃기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연습을 하고, 나중에는 재밌게 장난도 치고 잘 지냈지만 전체적으로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어요.

**P** 그렇다면 학창시절부터 꿈이 교사였던 건가요? (+@ 계기)

**R**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동생이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으로 선생님을 한다고 하자 ‘피식’ 웃었어요. ‘왜 이런 걸 하려고 하지’ 하면서요. 저는 한 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교사가 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고3때 수능 보고나서 담임선생님이 첫 상담 때 사범대로 가라 하셔서 갔죠.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다른 것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예를 들어 경영학과라든지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교생수업을 나갈 때 농담을 하면서 학생들과 농담하며 지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P** 그렇다면 고3때 사범대와 경영학과 모두 붙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R** 저는 경제경영을 가지 않을까 싶네요. ㅋㅋ. 경찰도 되고 싶었지만 범죄자를 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P** 보인고로 오게 된 계기

**R** 인생은 다 ‘어쩌다’의 연속입니다. ㅋㅋ. 서울의 여러 학교에 원서를 쓰고 시험을 봤지만 보인고의 첫인상이 매우 좋았어요. 오금동 가로수길이 있고, 한가하고 한적한, 사람의 마음을 끄는 학교였어요. 막상 들어오니 정신없이 돌아가긴 하지만요.

**P** 그렇다면 보인고 선생님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R** 학생들이 '나 보인고등학교 생활이 너무 좋다'라고 말할 때요. 처음에는 힘든 시스템 안에서 벽치고 힘들지만,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지내면서 보인고 생활을 좋아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보인고 초창기와 비교했을 때 날로 성장하는 학교를 보고 있으면 뿌듯해요. 그리고 애들이 저의 수업을 재밌게 들어주고 졸지 않고 들어주면 뿌듯해요.

 **개인적인 질문**

**P**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했을 때, 선생님께서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다른 선생님들 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장점이 있으신가요?

**R** 우리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을 모두 경험해보지 않아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낫다'라고 말하진 못 하지만, 자신 있는 것은 학생들과의 소통이에요. 학생들과 편안한 분위기와 얘기하는 수업이 가장 즐겁다고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억지로 웃어주고 '저 사람 오늘도 고생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P**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가요?

**R** 선생님도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매번 평정심을 유지할 순 없어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한 날엔 매우 기분이 안 좋죠. 솔직히 힘들게 하는 학생들은 눈치가 없는 학생이에요. 떠드는 학생들에게 이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떠드는 학생들을 보면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단절하는 학생도 힘들어요. 제 마음은 열었지만, 학생이 마음을 열지 않고 거리를 두는 학생들을 보면 힘들어요. 하다보면 짜증나는 것들이 많습니니다. ㅋㅋ

**P** 보인고에 오신 걸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R** 가끔 집에서 어린 애들이 있는데 퇴근시간이 늦어질 때요. 그리고 이걸 학교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기도 시흥인데, 편도만 53KM예요, 왕복 106KM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어요. 아침에는 일찍 출발해서 한 시간이면 오지만, 퇴근 시간에는 2시간에서 2시간 30분 걸려요. 집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힘들 땐 학교가 좀 가까웠다면 어땠을까 해요.

**P** 앞으로도 꼭 선생님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해도 될 춘추이신 것 같은데요.

**R** 선생님이 37살인데, 믿지 못 하겠지만 항상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학창시절엔 학교-집을 반복했고, 지금은 직장-집을 반복해요. 인생에 있어서 탈선이라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은 인생에는 모험을 하고 싶어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냥 계속 교사생활 하면서 활동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제게 변화를 줄 무언가가 찾아온다면 도전할 것 같아요.

**P** 선생님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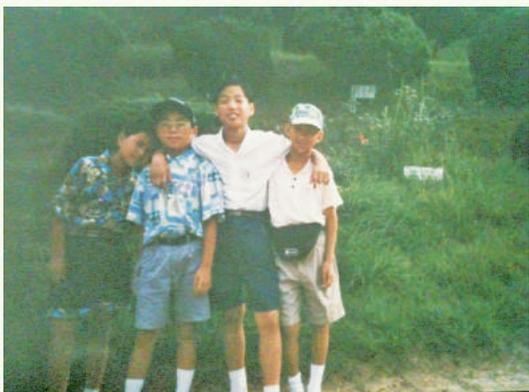
**R** 학생들은 적이 아니고,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을 정말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수업이 재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수업시간에 지루하지 않고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이것이 제 목표이기도 해요.

교사를 한다면 행정업무나 다른 업무가 많지만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질이 좀 필요해요. ㅋㅋ 그렇지만 이걸 제 방식이에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P** 선생님에게 문학이란?

**R** 과거로 올라갈게요. 초등학교-중학교 시절 선생님은 책을 정말 읽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수능에 나올 것 같은 단편소설만 골라 읽었어요. 그 때 삼국지를 다 읽으면 서울대를 간다는 소문이 있어서 삼국지를 시도했지만 1권 만에 포기했어요. 그러나 대학교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독서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문학이란 '거짓말'입니다. 쓸데없는 거짓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거짓말이요. 왜냐하면 소설에서의 상상도 어찌 보면 거짓말 중 하나잖아요. 문학에서 치밀하게 짜 놓은 거짓말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꿈꾸고 바라잖아요. 소설 속 주인공들이 힘들어 하고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발견하면서 내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은 '좋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P** 선생님에게 담배란?

**R** 왜 저를 생각하면 담배가 떠오르는지 의문입니다. 저에게 담배란 중독이죠. ㅋㅋ 일종의 질병입니다.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질병이요. 며칠 전에 병원 앞에서 금연치료를 후원해주는 것을 보면서 한 번 해볼까 싶었어요.

**P** 작년에 박병준 선생님이 금연하실 때 매우 예민하셨는데 수업에 지장 없으실 자신 있으세요?

**R** 저도 금연을 하면 매우 예민해지더라고요, 금연을 하면 귀여웠던 학생들에게 화를 내게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집에 있을 때예요. 화를 내고 담배를 필 때마다 후회해요.

**P** 대보인고에 그런 학생들은 없겠지만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R** 저를 보세요. ㅋㅋ

**?** 마무리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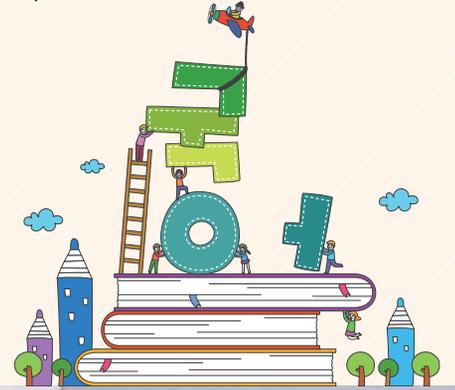
**P** 슬슬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게 보인고란?

**R** 볼 게 없어서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95세 의사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 분이 일요일마다 외국인 노동자를 진찰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느껴요. 물론 가끔 나약한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일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서 제가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인고는 저에게 밥벌이, 돈을 주는 곳입니다. ㅋㅋ 두 번째론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좋아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너무 좋아서 보인고에서 함께 하는 시간이 저에겐 큰 즐거움입니다. (100% 만족은 아닙니다. ㅋㅋ.)

**P** 선생님 류신형이 아닌, 아는 형 류신형으로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R** 매일 집-학교를 반복하면서 살다보면 이 패턴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봤음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고민 했음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여자친구도 사귀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생 똑바로 살라 하고 싶어요. 지금 아무 생각 안하고 있지? 인생 흑 간다.

# 국어를 새롭게 가르치다, 수업을 실생활과 연결 짓는 문지혜 선생님



보인고 대표 미녀

## 문지혜 선생님

문지혜 선생님 수업을 들어본 학생이라면, 청각과 시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 것이다. 수업에 열심히 임해주시는 우리 선생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보자.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문지혜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글 | 10518 유대건



**PLAYBOIN(이하 P)** 안녕하세요? 선생님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직업군 중 선생님이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지혜 선생님(이하 M)** 너희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지? 선생님도 대학생 시절에 전공은 있었지만, 여전히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 많은 고민을 했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이 있었고, 선생님이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두 개가 달랐지.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그 중간에서 고민을 했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잘하지는 못하는 거 같고, 잘하는 일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수님께 상담을 받았어. 대학교 때 교수님은 '당연히 잘하는 걸 해야지~ 잘하는 걸 하다 보면 그 일이 좋아질 거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 성취를 느낄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하는 일인 언론 쪽에서 일하고 싶었어. 그래서 방송 준비를 시작했고, 원하는 방송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었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중, 고등학교 진로체험 시간에 '방송인 외부 강연자' 신분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기회가 생겼고, 그 일을 계기로 학교에 발을 디게 되었어.

대학을 갈 때 전공을 선택하잖아. 그런데 언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꼭 신문방송학과를 나올 필요는 없어. 그래서 선생님은 방송국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던데, 떨어지면 제2의 계획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사범대에 진학했던 거야. 방송을 할 때 국어를 잘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국어교육과를 선택했고..^^

어쨌든 방송을 하다가 학교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만났잖아. 학생들에게 꿈 멘토링 같이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언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 그런데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내가 학생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선생님이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방송인이 현대사회에서 영향력이 제일 강력한 직업군이라 생각했거든. 선생님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 그런데 방송도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지만, 선생님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는 없는 거야. 선생님이 만나는 사람은 피디, 작가, 카메라 감독님뿐이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의 개별화된 삶, 그 구석구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의 적성을 깨달은 거야.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었던 것은, 전공이 국어교육이어서 교직 생활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

선생님이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가 생각하던 대로 모든 게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야. 선생님이 방송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해. 입시에서도, 진로 선택에서도, 직업을 결정할 때에도 '무조건'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냥 하는 거야.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할까, 잘하는 걸 할까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면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야기한다면 학교의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이나 수업 중 활동, 대학생이 되어서는 아르바이트, 사회봉사, 학생 활동 등 뭐든 발 벗고 나서서 도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안에서 자신의 적성을 깨닫게 되고, 길을 발견하게 될 거야!

**P** 많은 고등학교 중에서 보인고등학교에 오시게 된 이유는?

**M** 교과서적인 답변을 먼저 해줄게. "보인고등학교 온 이유는요, 보물을 찾는 인생 여행을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해봅니다. (웃음) 선생님은 송파구 토박이야~ 여기서 태어났고,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에도 보인고등학교를 알고 있었어. 우리 학교가 상업고등학교에서 인문계로, 인문계에서 자사고로 발전했잖아. 그래서 이 주변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거든, '요즘 뜨고 있는 학교다,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좋은 학교다'라는 소문을 이미 학교 밖에서 동네 주민으로서 들었어. 그래서 당연히 관심이 갔지. 그리고 물론, 선생님들 모두 그러하시겠지만, 선생님은 학교생활에서 '수업'을 정말x10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데 보인고에서의 수업이 너무 기대되는 거야. 학업에 열의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이고, 수업 분위기가 좋다고 소문이 나있어서, '보인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수업은 얼마나 재미있고 역동적일까' 라는 기대가 가득했지. 선생님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수업을 했었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업 태도, 우리 학교의 면학 분위기와는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아. 수업하기도 편할 뿐더러 보람도 더 크고, 너희들의 예리한 질문들을 받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도 더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

'교학상장(敎學相長)'이란 말을 선생님은 참 좋아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학교를 발견한 셈이지. 이 정도면 보물을 찾은 인생 맞지 않을까?^^



1 프랑스 파리에서 멋진 배경과 한 컷



2 프랑스 파리 개선문 앞에서 인생 샷 한 장



**P** 선생님의 취미는 무엇인지요?

**M** 선생님은 질문을 듣자마자 'music is my life'라는 말이 떠오르네. 한송이 선생님께서 이 글을 안 보셨으면 하는데, 음악은 선생님의 인생이에요. (웃음) 선생님은 희로애락을 음악과 함께하는 거 같아. 장르 불문하고 가요도 좋아하고 재즈도 좋아하고, 발라드도 좋고 댄스도 좋고. 또 선생님이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아하고^^ 틈날 때는 항상 음악을 듣는 거 같아. 교무실에서도 수업 없을 땐 음악을 많이 듣고, 이렇게 날씨 좋을 때도 음악을 듣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꼭 음악 한 곡씩 듣고 오늘 하루를 돌아봐. 그래서 첫 번째는 '음악 듣기'이고,

두 번째는 '여행' 하는 것. 여행도 좋아해서 틈날 때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야.

세 번째는 '혼자 가만히 있기'야 (웃음). 선생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야. 온종일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이런 저런 일을 마주하다가 집에 오면,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방문을 닫고 선생님만의 공간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데, 누워서 음악만 듣는다거나, 소설을 읽거나, 가끔 다이어리에 글을 끄적거리기도 해. 그러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 취미이자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이라고 할까? ^^

**P** 그러면 선생님이 뽑는 최고 노래는? 마지막 한 곡만 들을 수 있다면?

**M** 음..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그룹의 여자 보컬 '심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앨범을 모두 추천하지만, 하나만 고르라면 '부디'라는 노래를 강추하고 싶네.^^ 어제도 자기 전에 듣고 잤는데, 특히 힘이 빠지거나 우울할 때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선생님의 인생곡이라고 하고 싶어~

**P** 선생님께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지?

**M** 얼마 전에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서 가르쳤던, 지금은 고3이 된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 지금 3학년 선배들은 대학 입학원서를 쓰고 있잖아? 그 학생이 그렇게 수업 태도가 좋았던 학생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내심 놀랐지. '선생님~' 이러면서, 자기가 3년 동안 여러 수업을 듣고 학교생활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했던 수업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는 거야. 운동주의 <길>이라는 시를 가르쳤었는데, 그게 선생님의 첫 수업이었거든. 선생님 교직에서 첫 수업. 얼마나 떨렸겠어, 선생님은 준비한 만큼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수업이었다고 생각해서 아쉬움으로 남은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이 그렇게 인상 깊었다고 하는 거야. 그때 굉장히 감성

충만하게 수업했었던 거든. 그리고 그해에 여름 방과 후 때 문법 방과 후를 개설했었는데 그때 정리한 문법 파일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수능 보기 전에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사실 선생님이 2학기가 되면서 수업과 업무에 지친 상태였는데, 그 학생의 그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되고, 수업에 대한 열의가 다시 살아나더라구. 그러면서 재충전을 하게 되었어.

정리하자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듣잖아. 선생님 성격이 좋아요. 인상이 좋아서 편해요 등... 다 고마운 말들이지만, 선생님이 제일 기분 좋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학생들의 말은, '선생님 수업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수업 또 듣고 싶어요.' 라는 말이야. 특히 '선생님 수업에서 이런 부분이 좋아요.'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줄 때는 더 고맙지~ 수업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알게 되니까..^^

**P** 이번 교지 앙케트 설문에서 교내 여신 선생님 부분 압도적으로 1위를 하셨는데, 여신 외모로 학창시절 주위 유혹을 뿌리치고 공부를 잘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M** 선생님의 학창 시절 이야기가 궁금한 거겠지? 선생님은 학창 시절 때 완전 모범생에, 엄마 말씀 안 들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던 학생이었어. 교무실에 불려가서 선생님께 혼나면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을 정도로 모범생이었거든. 선생님 친구들은 알아.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우스갯소리로, 학창시절의 나를 키운 건 8할이 억압이었다고 얘기해. 좋은 말로 바꾸면 책임감이겠지만..^^

그런데 지금도 보통의 학생들이 그럴 거야. 억압된 환경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니까. 선생님은 규칙과 규율이 '어린 나'를 만들어 간 것은 맞지만,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건 선생님이 스스로 주체성 있게 행동하진 못했어. 스스로 자아를 발견하고 앞날을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내지는 못했지. 선생님과 학교가 시키는 것을 그저 해나갔을 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했었던 거든. 그런데 우리학교 학생들을 보면 다르더라구~ 우리 학교 프로그램, 특히 창의적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잖아.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기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와 장도 많고, 입시 제도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자신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늦게 태어날 걸

그랬나'라는 망상을 하기도 해. 고등학교 시절에 적극적으로 자기 계발을 해나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멋있어 보이거든..^^

**P** 선생님의 이상형은?

**M** 선생님의 이상형? 이 인터뷰가 내일까지 이어져도 되겠니? 1박 2일 동안 이야기해야 할 거 같은데, (웃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일 테니, 제일 중요한 하나만 이야기하면..^^ 선생님은 아름드리나무 같은 사람을 좋아해. 너무 오글거리나? (웃음) 나무가 가지를 넓게 펼치고 그늘을 넓게 드리우려면 속이 깊고 탄탄해야 하잖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 뿌리의 힘이 엄청나겠지? 겉으로는 부드럽고 여유가 넘치지만 내면의 힘이 어마무시한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 지나온 인생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고, 그렇지만 그게 아집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포용력 있게 하는 그런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니? 좀 알아봐줄래? (웃음)

**P**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유익한 말씀해주신 문지혜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항상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주시는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배움터 지킴이 \*  
**김희종** 선생님

우리 곁에서 늘 지켜주시는 선생님을 감사히 여기자는 마음으로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인터뷰를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20414 양찬규

**PLAYBOIN(이하 P)** 올해 새로 부임하셔서 선생님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겠어요?

**김희중 선생님(이하 K)** 지킴이 선생님은 경상남도교육청 공립 중·고등학교의 수석선생님으로 근무하다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2학기 본교 지킴이 선생님이로 근무하게 되었다. 우선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학생보호를 위한 배움터 지킴이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선생님이지. 학생들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근무하는 선생님 이란다.

**P**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K** 출근과 동시에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순회 및 학교주변 순찰 지도하면서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정리되어야 학습능력이 오르기 때문에 순찰도중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 일로 일과를 시작한다. 아무 곳이나 휴지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분리 수거해 버려주면 더욱 더 빛나는 민주시민, 학생이 되겠지.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지도 보조 차원에서 교내 쉬는 시간 및 수시 순회로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인성지도 보조 차원에서 교내폭력방지 지도를 위해 일하지. 점심식사시간, 석식시간에는 급식지도를 하는데 본관 현관에서 운동장 계단으로 이동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서 있고 쾌적한 급식시간이 되도록 지도하는 일을 하며, 특히 비 오는 날은 급식소 가는 계단이 미끄러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뛰거나 장난하는 일이 없는 기본생활 습관이 길러지면 더욱 좋겠어. 또, 학교시간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를 위하여 귀가지도, 교문·교통안전지도, 용의복장규정 지도, 학교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를 하지.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다보면 어느 듯 하루일과가 간단다.

**P**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K**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지킴이 선생님과 마주칠 때 인사하는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아주 멋져 보이지.

자사고의 좋은 시스템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라 학생들

이 스스로의 일을 알아서 하는 느낌이었지.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하듯 학생들은 여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는 좋은 정보와 조언과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을 先生님이라 부르지.

**P**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K** 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면 훌륭한 사람이 꿈꾸는 만큼 배출될 거라고 믿지. 또한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예절, 청결, 질서, 효행, 내 몫 다하기)을 갖고 자신만의 소질과 특기를 살려 장차 사회에서 훌륭한 전문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또한 지킴이 선생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도록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학생 보호를 도와주는 선생님으로서 학교가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로 급우 간에 동문수학(同門受學)하여 친구 간에 우정을 나누어 앞으로 사회에서 즐거운 친구로 만나는 일에 도움을 주도록 할게.

**P**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K** 우리 학생들을 보면 마치 우리 집 막내처럼 느껴져. 청소년 시절에 공부를 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흡수저든, 금수저든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삶을 바꾸는 방법은 없지. 배움이 없으면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순간에도 배움이 있어야만 발전이 있을 수 있어. 우리 학교 교훈인 「날로 새롭게(Renew everyday)」의 뜻을 쉽게 풀이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거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새롭게 변하기 위해 ‘우리 열공하자’ 라는 뜻이거든. 여러분 곁에는 우리 학교의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질문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에 도전을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늘 이기고 성공하는 법만 배운 사람은 인생에 있을 크고 작은 좌절의 순간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지. 실수와 실패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더욱 발전할 수 있고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경험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니 미래에 대해 도전할 것을 주문한다.



동아리 기사

## 경제동아리 CIS

매년 신입생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학교의 동아리에서도 새로운 자리가 마련된다. 1학년 때의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2학년 학생들은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동아리를 홍보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홍보동영상으로 눈길을 끈 동아리가 있다하여 교지편집부가 동아리 인터뷰에 나섰다.

취재 · 글 | 20125 이승재

### 우리학교 동아리 탐방기 1



**PLAYBOIN(이하 P)** 안녕하세요. 교지편집부에서 부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승재입니다. CIS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와 경제동아리 CIS는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CIS 부장 길아성(이하 K)** 안녕하세요, 저는 보인고 최고의 상경계열 동아리 C.I.S의 부장을 맡고 있는 길아성입니다. C.I.S에서는 매 동아리 시간마다 경제·경영 관련 주제에 대해 조별로 토론하고 그 내용을 활동지에 작성하여 발표를 합니다. 또한 모의창업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직접적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역시 보인고 최고의 상경계열 동아리답게 여러 활동을 하는 것 같네요. ‘경제’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모의고사나 학력평가 등의 비문학 지문에서 접한 것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경제관련 지문은 높은 오답률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경제, 경영 하면 학생들이 선뜻 다가가기 쉽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요. 어떠한 계기로 경제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K**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라는 과목이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거의 없죠.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하나의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수고가 필요하죠. 그런데 경제라는 건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는 학문이잖아요. 전 그 ‘이해’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현상은 하나의 결과가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노력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자료조사를 해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내 맘대로 추측해보기도 하고, 그렇

게 이해하면서 알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흥미로워요. 게다가 경제는 역사, 정치, 문화, 더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아까 경제는 자본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이 어렵지 사실 매일 매점에서 빵 사먹는 것도 돈을 주고받는 경제 행위이고 자본의 흐름이잖아요. 알고 보면 이렇게나 가깝고 익숙한 경제를 관심 갖기도 전에 피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 경제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 경제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모임이 바로 C.I.S입니다.

**P 동아리 활동 중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직접 강의를 들은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으며,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K** 강사님은 IBK 금융 애널리스트셨는데, 저희 동아리 부원의 소개로 오셨어요. 언젠가 한 번 동아리 활동 때 제대로 된 경제와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강사님께서 저희를 상대로 강의를 진행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바로 자리를 마련했죠. 경제 중에서도 ‘금융’이라는 분야, 특히 주식에 대한 개념과 예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금융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셨는데, 요즘 어느 분야에서나 빅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인 만큼 주의 깊게 들었고 그만큼 재미있었어요.

**P 동아리 내에서 진행하는 여러 직접적 활동들 중에 ‘모의투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K** 이제 와서 말하지만 표면적으로만 모의투자였고 사실 실제 주식 거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부원들만 돈을 모아서 차장 김평강의 계정으로 주식 거래를 진행하였죠. 저도 주식 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이 활동은 생소하면서도 신선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그리 썩 좋지 않았어요.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동아리 활동 중 가장 직접적인 경제 활동이었고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었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이었

다고 생각해요.

**P 매 시간 토론이나 발표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동아리 내에서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K** 일단 제가 부원들이나 동아리 담당 교사이신 김홍민 선생님과 상의를 한 후 활동 주제를 정해요. 그리고 활동이 있는 주에 동아리 전용 SNS로 활동 내용과 사전 준비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동아리 활동 시작과 동시에 활동 내용을 PPT로 간략하게 한 번 더 소개를 해요. 이러한 체계적인 활동은 보통 조별 토론과 활동지 작성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주제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하면서 경제 현상을 보는 안목을 넓힐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토론이 끝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죠. 활동 과정에서 동아리 부원 모두가 함께 의논하여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P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이나 발표가 있으시나요?**

**K** 동아리 활동 9차시에서 다뤘던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에 관한 활동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뉴스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 중 하나가 ‘복지’죠. 그 복지라는 게 국가가 세금을 걷고 재분배를 하는 것인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수정자본주의의 개념과 매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동아리 부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수정자본주의의 개념부터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 국가들의 복지 수준과 OECD 행복 지수 순위의 관련성, 우리나라의 복지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복지가 꼭 필요한지를 논했죠. 사실 수정자본주의는 표면적인 주제였고, 제가 이 활동을 통해서 부원들과 다뤄보고 싶었던 건 복지라고 해야겠네요. 어쨌든 이 활동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평소 생활에서 자주 접했던 내용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P 동아리를 소개하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SNS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시나요?**

**K** 사실 그 페이지는 동아리 홍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1

학기 초 동아리 지원 기간 이외에는 거의 운영을 하지 않아요. 지난 해 모의창업 활동 때 창업 아이템 평가 및 홍보와, 이번 해 축제 부스 홍보 때 써먹었던 기억이 있긴 하네요. 사실 SNS의 활용도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동아리 페이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더 의논해보고 실행에 옮겨봤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와 아쉬운 마음도 꽤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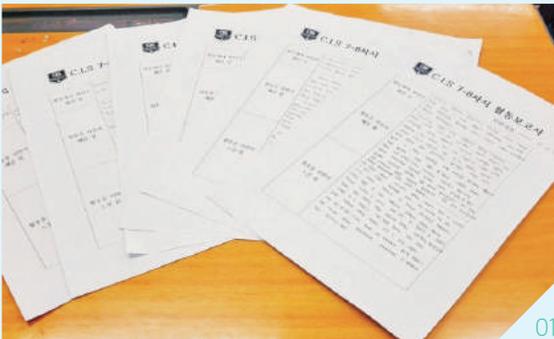
**P** 이제 내년에 입학하게 될 18학년도 1학년 학생들과 내년에 신입 부원으로 들어오게 될 학생들을 위한 말씀 해주시죠.

**K** 예비 입학생 전원에게 말하는 건 재미없고 경제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흥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도 경제는 너무 어렵다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그 관심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에요. 아까 경제 현상은 인과관계가 복잡하다고 했는데 그런 만큼 그 관계가 명

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히 이해한다면 전혀 무서울 것 없어요. 용어나 그래프 같은 것들도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지만, 무조건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차근차근 알아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경제 지식은 대입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돈을 아끼는 사람은 있어도 그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쩌면 돈을 안 쓰는 행위까지 경제행위에 포함된다 고 볼 수도 있죠. 경제 지식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유용한 지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 경제에 관심이 없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흥미로 바꾸시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 흥미를 계속 키워 나가면서 경제 지식을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다 말하고 나니까 뭔가 예비 1학년보다는 모든 학생에게 하는 말 같네요. 감사합니다.

**P**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① 매 시간 작성하는 보고서 ②,③ 토론활동 또한 매 시간 진행된다. ④ 외부 강사 강의 시간



01



02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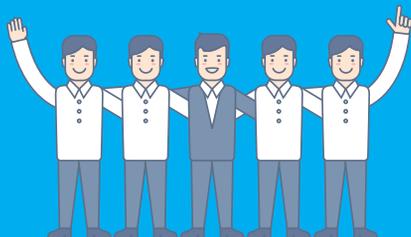


## 동아리 기사

# 토론동아리 에센시아

‘토론’이라고 하면 우리는 특정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편을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을 떠올리는데요. 기존의 토론 방식에 여러 가지 토론 주제와 차별화된 토론 방식을 더해 색다른 대화가 오간다는 동아리 ‘에센시아’를 방문해보았습니다!

취재 · 글 | 20125 이승재



## 우리학교 동아리 탐방기 2



**PLAYBOIN(이하 P)** 안녕하세요. 교지편집부에서 부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승재입니다. 이번에 취재할 동아리는 문과 동아리! 하면 바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동아리인 에센시아인데요.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와 토론동아리 에센시아는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에센시아 현재천(이하 H)** 안녕하세요! 저는 에센시아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활약하고 있는 부원 현재천입니다. 특히 군사, 안보분야에 관심이 많아 ‘국방천’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P** 문과하면 ‘에센시아’라는 명성이 있기까지, 에센시아의 노력은 무엇이 있나요?

**H** 우선, 제가 알기로는 창립 초반에는 에센시아가 자율동아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정규동아리에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에센시아는 본업인 토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이외의 학교생활에서도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줍니다. 성적과 진학 실적이 증명해주듯, 선배들의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우수하다는 점도 문과 최고 동아리라는 에센시아의 명성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동아리 부장인 강태운 학생과 차장인 성재경 학생이 매우 의욕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이끌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알차고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천년제에서는 박제용 학생의 주도로 위안부 팔찌, 세월호 배지를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편지를 써서 복지관에 보내는 등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장, 차장을 포함해서 모든 부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영파여고에서 개최된 외부토론대회에 강태운 부장과 임재현 부원이 참가하여 우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외부 대회에서까지 입상하는 실력을 갖춘 것을 보면 현재까지도 에센시아는 역시 문과 최고 동아리라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P** 교내에서 진행되는 토론 대회에서는 입상자의 대다수가 “에센시아” 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H** 네,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는 대주토론대회에서는 제가 1학년이었을 때부터 항상 에센시아 부원이 있는 팀이 우승했습니다. 특히 올해 1학기 대주토론대회 2등 팀은 팀원 전부가 에센시아 부원이기도 했지요. 제가 1학년 때 진행되었던 교내 TED 대회에서도 현재 부장인 강태운 학생이 1학기, 2학기 모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대회에서부터 여러 작은 대회까지 에센시아가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학생회에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다수의 임원들이 에센시아 부원이고,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배와의 만남’ 행사에서 입학설명회를 진행한 홍보단 학생들도 전부 에센시아 부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대회와 임원활동 등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에센시아가 크게 활약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 동아리 내에서 활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H** 우선 강태운 부장과 성재경 차장이 올해 연간 동아리 활동 일정을 보고 대략적인 활동을 구상합니다. 그 후 활동 일정과 학생들의 시험기간을 고려해서 토론 날짜를 정하고, 부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토론 주제를 정합니다. 고리타분한 토론 주제가 아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판하는 대선토론, 인공지능 문제, 탈원전 문제 등 신선하고 시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또한 토론방식도 CEDA 토론, 의회식 토론, 갈-포퍼식 토론 등 부원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토론 방식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여 선정합니다. 가끔 부원들의 일정이 바빠 토론을 하지 못하는 날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담당선생님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소

감문을 쓰는 활동을 진행해 주십니다. 이렇게 에센시아는 부장, 차장만이 이끌어가는 동아리 활동이 아닌, 모든 부원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계획하고, 학생들의 대회와 시험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주는 양질의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P** 여러 가지 토론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가능한가요?

**H** 우선 CEDA 토론 방식은 우리 학교에서 주로 이용하는 토론 방식입니다. 학교의 대표적인 토론 대회인 대주토론 대회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EDA는 Cross Examanation Debate Association의 약자이며, 여기서 Cross Examanation는 CEDA 토론의 특징인 교차조사를 의미합니다. 교차조사에서는 상대의 논증적 오류, 약점, 미흡한 점 등을 공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CEDA 토론은 입론과 반론을 각각 두 번씩 하게 됩니다. 상당히 길고 심층적인 토론이 가능하지요.

반면에, 그 다음으로 언급했던 갈-포퍼식 토론은 입론이 한 번, 반론이 두 번 진행됩니다. CEDA 토론에 비해서 질문과 반론에 비중을 둔 것이지요. 때문에 주장을 제기하는 것보다 제기된 주장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식 토론은 영국 의회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한 토론방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교차조사가 없다는 것인데, 교차조사 대신에 발언권요청(POI)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2대2로 입안과 반박을 하며 토론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에센시아에서는 CEDA 토론을 주로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토론 방식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입학하게 될 1학년 후배들도 에센시아에서 이처럼 토론에 대해 심도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P**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 수 있나요?

**H** 음, 에센시아에서 진행되었던 토론은 그 주제가 대부분 신선하고 참신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 그래도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찬반’ 주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학기에 진행했던 주제였는데요. 올해 1학기 대주토론



대회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대주토론대회 주제가 발표되고, 동아리에서는 토론대회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결국 제가 속한 팀이 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토론을 미리 해 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로 정시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의 한계, 수능 대비를 위한 사교육의 심각성을 주된 주장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한 비교과 관리가 오히려 비교과 컨설팅을 조장하고, 학교의 수준과 부모의 재력 등 능력이 아닌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주장을 주로 펼쳤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토론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많은 지식이 요구되는 주제였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에센시아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것이며, 때로는 학생들이 교내대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대회에 맞춘 주제로도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P** 혹시 다른 동아리 부원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나요?

**H** 토론동아리 에센시아는 토론 활동 이외에도 발표, 다큐멘터리 감상 후 소감문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 축제 부스 활동 등 어떠한 분야에서든 연합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던 간에 열정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에센시아를 믿고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P** 이제 내년에 입학하게 될 18학년도 1학년들을 위해 한마디 말씀 해주시죠

**H** 자신의 진로가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토론과 발표를 좋아하며 학교생활을 알차게 하고 싶다면 망설임 없이 문과 최고 동아리, 에센시아에 지원하세요! 열정적이고 실력 있는 부장, 차장 그리고 부원들이 여러분의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마치 친형 같은 선배가 되어줄 것입니다.

# 고등학교 첫 수련회를 다녀와서

글 | 10404 김정현



## 첫째 날

친구들끼리 설레는 마음으로 개롱역에 9시까지 갔지만, 버스는 없었다. 그 자리에서 30~40분정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쳐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막상 버스에 타자 우리는 활발하다 못해 미칠 지경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렇게 버스를 달려서 2시간정도 뒤에 평창 유스호스텔에 도착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주도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잔뜩 기대하고 있었지만, 막상 도착하고 나니 여기저기 실망스러웠다. 그런 실망스런 마음을 안고서 우리는 입소식을 위해 강당으로 들어갔다.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해 보는 입소식이라 긴장되기도 했지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루할 것 같으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입소식을 연습해 보았는데 청소년 지도 선생님이 너무 강력하셔서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다. 수학여행처럼 풀어진 분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 이때부터였다.

진지하게 입소식을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갔다.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갔을 때 대부분 뷔페 형식으로 식사를 하듯이

평창 유스호스텔도 그런 형식이었는데 첫날이라 그런지 먹을 만 했었다.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서 수련회를 가기 전에 구성했던 조 친구들과 함께 방으로 갔다. 기대가 컸지만 원룸에 화장실 하나여서 우리는 실망했다. 게다가 짐정리하고 두 줄로 앉아있으라고 해서, 지도 선생님들도 엄격하고 방도 별로고 수련회 자체가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버렸다. 수련회와 수학여행에서 대부분 즐거운 시간은 숙소에서 노는 시간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서 화재 대피 훈련을 한다고 했다. 우리는 방에 줄서서 앉아있고 지도 선생님은 각방에 문을 열고 돌아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요즘 안전문제가 심각해져서인지 진지하게 지도하셨다. 기체가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연기가 짙 차자 옆에 친구들 말고는 아무것도 안보이게 되었다. 문득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고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대피훈련을 제대로 듣기 시작한 것 같다. 차례가 된 후 직접 해보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앞으로 엎드려서 가다가 중앙에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옆으로 피해서 달려 나갔다. 정말 무서워서 달려 나갔던 것 같다. 그렇게 화재 대피가 끝나고 강당으로 갔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교육 차례였다. 보인고에 들어오고 나서도 심폐소생술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기억이 나서 잘할 수 있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끝나고 이번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헬스로빅과 요가를 배운다고 했다. 요가는 알지만 헬스로빅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았다. 선생님이 헬스로빅을 가르치실 때 헬스로빅은 노래에 맞춰서 동작을 하는 운동이라고 하셨다. 노래에 맞춰서 선생님께 하나하나 동작을 배우고 따라해 보고, 앞이나 와서 하고 싶은 친구들을 나오게 해서 춤추게 시켰다. 웃기게 추는 친구가 몇 명 있어서 정말 재밌게 봤다. 그 후 요가를 했는데 요가의 동작을 몇 개 하기도 전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내려왔다.

모두가 기다리던 시간 중 하나인 바비큐 파티를 한다고 하자 우리는 열광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현장에 가보니 이런 곳은 처음 와본 느낌으로 세팅도 다 돼 있었고 먹을 것이 가득했다. 고기 굽는 사람 따로 먹는 사람 따로 있어서 고기 굽는 친구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았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씹을 짜주고 음료수를 갖다 주었다. 음료수가 약간 부족한 듯싶을 때 중앙에서 음료수 내기로 반끼리 대결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즐겁고 맛있었던 친구들과의 바비큐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대망의 캠프파이어를 했다. 캠프 파이어는 평소 지루한 것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평창 유스호스텔에서의 캠프파이어는 점화를 하는 것부터가 달랐다. 별동별이 내려오듯이 불꽃이 내리꽂혀서 점화를 하는 장면이 멋있었다. 그 뒤로 촛불을 들고 부모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것만 같았지만 지도 선생님들이 앞에서 공연을 해주시고 열기를 더했다. 그 뒤 우리는 일어나서 반끼리 기차를 만들고 뛰어다녔는데 그때는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것조차 재밌었다. 그러고서 무대에 다들 모여서 무대 위에서 디제잉 하는 것에 따라 마치 클럽에 온 듯 날뛰기 시작했다. 친구들끼리 서로 어느 정도 알게 된 상태로 가게 된 수련회지만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알아버린 것 같았다. 미친 듯이 뛰어놀았고 몇몇 친구들은 목이 쉬었다. 그렇게 끝난 캠프파이어는 재밌었지만 힘들었던 활동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다. 숙소에 들어가서 뺨을 것만 같았지만 점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눕지도 못하고 씻고 준비하기 바빴었다. 아쉽게도 첫날에는 자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첫날은 그냥 자고 다음날 자유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하셨다. 떠들면 혼나기 때문에 떠들지도 못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첫날은 폭 잠다.

## 둘째 날

둘째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했다. 아침식사도 그러저럭 우리학교만큼은 아니었지만 먹을 만했다. 아침 먹고서 우리는 수영활동을 하러가기 위해 옷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갔다. 부표건너기라는 활동으로 수영장에 부표로 다리가 띄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안 빠지고 건너면 되는 게임이다. 반별로 많이 빠져나간 반에게 상을 준다고 하자 우리는 넘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기와 달리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중반부를 넘어가기가 특히 어려웠다. 왜냐하면 가운데는 이어져 있지 않고 떨어져있는 구조라서 점프를 해야 됐기 때문이다. 중반부로 오기 전에 빠지거나 중반부에서 빠지는 게 대다수로 통과하는 학생들은 아이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건넜다. 한반에 2~3명꼴로 건너는 것을 성공했다. 특히 이 활동에서 재밌었던 것은 친구들끼리 잡고 넘어지고 던지고 하는 물귀신작전이었다. 건너지는 못해도 빠지면 정말 시원해서 물에 빠지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그 후 수영장에서 자유 시간을 잠깐 가진 뒤 숙소로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강당으로 향했다.

이번에 할 활동은 미션 오리엔티어링이라고 하는 보물찾기 같은 활동이었는데, 반에서 5~6명끼리 조를 짜게 되었다. 이곳 평창 유스호스텔 안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문제지를 찾고 답을 달고 가장 많이 찾거나 답을 많이 맞힌 학생들에게 상을 준다고 했다. 출발하기 전에 문제를 하나 제시하고 이걸 맞추는 조는 먼저 출발하게 된다고 말하자 우리는 열나게 풀기 시작했다. 하나둘 출발하기 시작하고 모두가 바깥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풀었다. 문제지들은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었지만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걱정이었다. 특정한 미션으로 사진 찍고 검사 맡는 문제도 있었다. 친구들끼리 친밀감과 협동심을 발휘해서 찾고 답을 의논하다 보니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이번 평창유스호스텔 수련활동도 처음 와서 생각해본 것 같달리 재밌는 것 같아서 좋았다.

오전활동이 끝나고 점심식사 뒤에 오후활동을 시작했는데, 1인1기라는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종목을 선택해서 배우고 나중에 발표를 하는 활동이다. 수화, 리권, 탈춤, 응원댄스, 난타, 탬버린댄스 6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중 탬버린댄스는 전국 청소년 수련센터에서 이곳에서만 진행하는 활동이라고 했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때리고 부수는 활동인 난타와 리권이 인기가 많았다. 은근 수화도 인기가 많았다. 응원 댄스와 탬버린댄스는 인기가 별로 없었다. 각 교육 하는 곳으로 가서 2시간정도 교육을 받았다. 친구의 말로는 수화는 정말 어렵고, 배우고 배워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하는 수화동작만 따라했다고 한다. 친구들끼리 이런 활동을 처음으로 배우는 시간이어서 재미도 있었고 누가 더 잘하는지 겨뤄 보기도 했다. 선생님들도 다들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배우는데 더욱 열심히 임했던 것 같다.

다음으로 우리는 강당으로 향했다. 장기자랑을 하는 날이었던 것이다. 남고라 그런지 칙칙한 분위기에 기대하는 친구들은 단한명도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의외로 장기자랑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놀랐다. 특히 댄스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기계처럼 팝핀 댄스를 춰서 놀랐다. 공연을 마치고 우리는 일정에 없던 일인 축구를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을 하고 있었는데 매마침 수련회 둘째 날 밤 8시에 대한민국vs아르헨티나 경기가 있었다. 특별이벤트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2002 월드컵 때처럼 많은 사람들끼리 축구를 구경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이상황이 조금 웃겼다. 축구를 집중해서 보게 되자 모든 아이들이 탄식과 함성을 내지르게 되었다. 특히 골을 터뜨렸을 때에 함성이 엄청났다. 역시 스포츠는 우리를 단합시켰다. 우리나라가 결국 2대1로 아르헨티나를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을 때 함성소리는 엄청났었다.

둘째 날도 프로그램들이 모두 종료된 상태로 점호를 맞이했다. 축구 못지않게 기다렸던 자유시간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자유시간은 새벽 2시까지 주기로 하셨다. 은근 적을 것 같았지만 막상 놀



아보니 지칠 만큼 많은 시간이었다. 자유 시간 동안 입이 심심치 않게 학교에서 닭강정도 사서 숙소마다 나누어줘서 먹고 친구들끼리 오랫동안 자유롭게 떠들고 노는 순간 자체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다. 아쉬움이 별로 남지 않는 재미가 가득했던 수련회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셋째 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아쉬움에 생각보다는 '1인기 발표 어떻게 하지, 망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밖에 거의 들지 않았다. 게다가 연습 할 시간도 없이 아침식사를 하고나서 이루어지는 발표시간이기 때문에 더욱이 걱정되었다. 아침식사를 하고 친구들은 강당에 모여서 서로의 발표 준비물을 챙겼다. 각 담당 선생님들이 마지막까지 연습을 시켜주시고 이것으로 연습은 끝이 났다. 하나하나씩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리권은 태권도와 권투를 노래에 맞춰하는 것이 역시 절도 있고 멋졌다. 탬버린댄스는 음악에 맞춰서 탬버린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냈는데, 저렇게도 소리를 낼 수 있구나 하는 신기한 동작도 있었다. 수화는 정말 보기에도 어려워 보일 정도로 노래에 맞춰서 손동작을 하는데, 공연을 한 것들 중에서도 난타가 인상 깊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단합과 실력을 어떻게 만들었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다. 난타는 대부분 다 잘했던 것 같다. 이것으로 1인기의 발표들은 끝이 났고 퇴소식을 하게 되었다. 순서는 입소식과 비슷하게 진행되었지만 입소식을 할 때와의 마음과는 달랐다. 입소식 할때는 여기가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다면 퇴소식 할 때는 '정말 아쉬웠고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3일이 손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학교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쓰던 방을 청소하고 나갈 준비를 했다. 다음 학교의 입소식이 끝나자 우리는 정들었던 숙소를 나가게 되었고 버스를 탈 때는 수련회 기간 동안 친구들과 핸드폰만 만졌던 것 같아서 쓸데없이 시간만 투자했던 휴식 기간이었다는 느낌도 들었다. 왜 이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자연에서 나가서 놀 생각은 안 해보고 자연구경은 해볼 생각도 안 해보았는지 버스가 출발하고서야 후회했다. 원래 사람은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어지니 후회를 하는 것 같다. 친구들과 더욱이 의미 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수련회와 친구들과는 나중에 다른 활동들로 의미 있는 추억을 쌓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고 우리를 3일 동안 안전하게 이끌어주신 지도 선생님들과 우리 학교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친구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 고등학교 최고의 추억여행, 부산으로 떠나다

지루한 수학여행의 틀을 깬 자유로운 활동으로 친구들과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된 수학여행

글 | 21103 김도윤

## 기다리던 수학여행, 부산으로 출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우리는 통영·부산을 비롯한 경상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잠시나마 시험이나 공부에 대한 부담은 모두 내려놓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어른이 된 후 두고두고 즐겁게 회상하게 될 학창시절 마지막 수학여행이기도 했던 만큼 나름대로 의미가 큰 여행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이번 여행에서는 친구들과 후회 없이 최고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오고 싶었고, 설레는 마음에 어느 때보다도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우리는 부산으로 향하는 SRT에 올라탔다.

경상도로 가는 팀은 A와 B 두 팀으로 나뉘었다. A팀은 통영 중앙시장, 루지, 케이블카, 워터파크, 서바이벌 게임과 남포동 일대 시장을 체험하며 통영, 부산을 모두 돌아다녔지만 B팀은 요트체험, 워터파크, 부산대학교, 오륙도 스카이워크 등 부산을 중심으로만 체험해서 서로 만날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가끔 김해 롯데 워터파크와 같이 겹치는 스케줄이 있을 때, 친한 친구들끼리 뭉쳐 서로의 일정을 비교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 친구들과 함께 해 즐거웠던 기억들

### A-통영 루지 체험

첫날, A팀은 통영의 루지 체험장에 도착했다. 수학여행에서의 첫 번째 체험이기도 했고, 출발하기 전 계획표만 봤을 때부터 이미 굉장히 기대하던 체험이었던 만큼 가는 내내 다들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다. 루지의 속도가 꽤 빨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안전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을 들으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저 앞에서 먼저 내려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결눈질로 훑듯 쳐다보았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 가슴이 점점 더 두근거렸다.

루지는 바퀴가 달려있는 썰매를 타고 핸들을 당기며 방향·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었다. 직선 코스와 곡선 코스가 적당히 섞여있어 단조롭지도 않고 타는 동안 통영의 경관을 조금이나마 둘러볼 수 있어 여러 가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체험이었다. 처음에는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익숙해 지다보니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무섭기 보다는 짜릿해져 소리를 지르는 친구들도 있었다. 친구들을 추월하며 서로 경쟁하다보니 재미가 배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가끔씩 방향조절을 못해 친구들과 부딪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즐거운 마음에 들떠있던 우리는 아픈데도 웃으며 마지막까지 모두 함께 즐기다 돌아올 수 있었다.

### B-요트 체험

B팀의 첫날 일정은 바로 요트체험이었다. 역시 요트라고 하면, 남자의 로망이다. 한 손에는 칵테일이나 샴페인을 든 채 다리를 꼬고 앉아있으면 양 옆에서 비키니를 입은 미녀들이 미소를 지으며 달려오고, 선글라스를 고쳐 쓰며 바다를 향해 시선을 돌리면 바다에서 돌고래들이 펄떡펄떡 뛰어오르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속의 반짝거리는 요트. 당연히 아닐 줄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우리가 탄 요트는 그렇지 않았다. 배의 크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컸고, 배 위에는 온통 남학생들뿐이었다. 어쩔 수 없는 남고라는 것일까, 정말이지 너무 행복해 웃음이 나왔다. 그렇다고는 해도 꽤나 재미있고 색다른 경험이었다. 요트가 흔하게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새로운 경험이라는 점도 있었을 지 모르겠지만, 속이 뱅 뚫리는 풍경의 바다 위에서 옆의 친구들과 크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여기저기서 사진들을 찍으며 노는 것은 학교나 숙소에서 하던 것과 비슷했는데도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 반팔 차림으로 서있기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계속해서 불어대고 있었지만, 계속 즐겁게 떠들며 놀다보니 바람이 차갑기보다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 AB-김해 롯데 워터파크

둘째 날, 우리는 버스를 타고 김해 롯데 워터파크로 갔다. 사실,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유명한 홍천의 오션월드나 용인의 '캐리비안 베이'에 비해서 인기가 떨어지는 만큼 시설이나 규모도 그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는데, 상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에 약간 놀랐다. 차를 타고 가며 멀리에서도 보이는 슬라이드들도 꽤 많이 있었고, 넓은 파도 풀도 운영되고 있





었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덕분에 우리들은 워터파크를 독점하다시피 놀 수 있었다. 따뜻한 실내에서 여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실외에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짜릿한 슬라이드들을 즐기기도 하고, 일찍 나와서 건물 안의 찜질방이나 사우나로 들어가기도 하는 등 우리 모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정말 아쉬웠던 점은, 슬라이드를 거의 못 탔다는 점이다. 점점 때문인지, 광고 촬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착해서 실외로 나갔을 때는 대부분의 슬라이드들에 물은 흐르고 있지 않았고 탈 수도 없었다. 물론 그 외에도 놀 수 있는 곳은 많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슬라이드를 기대하고 갔던 친구들은 크게 실망하고 아쉬워했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게 놀고 올 수 있었다.

#### A- 서바이벌 게임

버스를 타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서바이벌 게임장에 도착했다. 물론 서바이벌 총이었지만 총을 사용하는 체험이기에 안전교육부터 받았다. 체험에 대한 설명을 듣다보니 ‘드디어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웬지 비장한 마음이 드는 것도 같았다. 시작 전 흑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군복무늬의 옷과 조끼, 바지 등을 착용했는데, 옷에 그려진 군복 무늬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해지고 새삼 긴장이 되었다. 내가 게임 화면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체험장은 원형으로 되어있었는데, 나무들과 파란색 엄폐물들이 많이 있어 총알을 피하거나 숨어서 공격할 수 있는 구조였다. 총에 맞거나 상대 팀에게 손으로 잡히면 사망 처리되어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한판 한판이 빠르게 진행되어 그 많은 학생들이 모두 체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밖에서 볼 때는 적을 못보고 뛰어가다 아웃되는 친구, 무서운 지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웃기게만 보였지만 막상 직접 참여해보니 내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변에서 하나 둘씩 아웃되어 총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니 두근거림과 긴장감이 점점 심해졌다. 그리고 사실 설명을 들을 때 ‘총에 맞아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라는 불순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한번 맞아보니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아파 도저히 안에 남아있을 기분이 들지 않았다.

비록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고 뛰어 지치기는 했지만, 직접 FPS게임을 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 B- 오륙도 스카이워크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를 타기 전의 마지막 일정은 오륙도 스카이워크였다. 스카이워크, 말 그대로 하늘을 걷는 느낌을 주는 다리 같은 곳인데, 바닥이 유리로 되어있어 아래쪽의 아찔한 광경을 보며 스릴을 즐기는 곳이다. 인터넷

상에서 봤을 때는 주변의 경치도 멋지고 높이도 어느 정도 높아 보여서 기대하며 도착했지만, 솔직히 기대 이하였다. 유리의 색깔이 질기도 했고, 길이도 15m정도로 짧아 기대했던 스릴은 느끼기 힘들어 아쉬웠다. 그래도 스카이워크와 주변의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아침에 TV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번 수학여행은 그동안 갔던 수련회나 수학여행들과는 다르게 활동이나 체험들이 보다 특색 있고 재미있게 진행됐다. 밖에서 돌아다니는 시간보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더 긴 지루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골라서 할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평소에 별로 대화를 하지 않던 친구들과 함께 밤을 보내며 떠들고 놀다보니 가까워질 수 있었고,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등 친구관계를 이번 여행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생 남을 추억을 쌓게 되어 정말 즐거웠다.



# 5.18에서부터 세월호까지

## 보인고등학교 사이언스 컬처로드

글 | 20227 윤영식

7시 10분, 80여 명의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말임에도 이른 시각 학교 정문 앞에 모였다. 진도로 사이언스 컬처로드를 가기 위해서였다. 버스에서부터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가는 것처럼 들떠있었다. 하지만 이번 컬처로드의 목적지인 진도는 만만치 않게 먼 곳이었고 떠들썩하던 버스 안도 서서히 조용해졌다.

3시간 정도 버스를 탄 후에야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인 5.18 묘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영령들이 잠든 곳인 만큼 분위기는 차분하고 엄숙하였다. 나는 묘역에 있는 수많은 묘비들을 보고 여기 잠드신 분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묘역에서 잠시 묵념을 하였고 대표학생들이 나와 추도사를 낭독하였다. 추도사를 듣는 중에는 모든 학생들이 예의를 지키고 충분히 묵념을 하면서 그분들의 희생을 기렸다. 주변에 있는 박물관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었고 당시 정권을 잡은 이들의 참혹한 탄압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80년, 모두에게 ‘빨갱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2017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5.18 묘역을 뒤로 하고 1시간 정도를 더 간 뒤에 도착한 곳은 목포해양박물관이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모형 선박의 모습에 눈을 땔 수 없었다. 손바닥 크기로 축소한 배에서부터 전시관 하나를 꽉 채울 정도의 배 모형이 우리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 곳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기술의 역사, 주로 선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과거 통나무로 만든 뗏목에서부터 이순신장군의 거북선, 그리고 현재의 선박들의 모형을 보면서 선박들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었고 그와 함께 발전한 우리나라의 해양기술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 목적지는 2014년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진도의 팽목항이었다. 5.18 묘역과는 다른 엄숙함과 침울함이 우리들을 덮었다. 우리들과 같은 나이에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해 떠난 수학여행 길에서 참사를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 한 구석이 옥신거리도록 슬펐다. 또 우리 정부의 정확하지 못한 정보 제공과 늦장 대처를 생각하면서 분한 마음도 올라왔다. 우리들은 팽목항의 노란 물결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추도사를 낭독하였고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 학생이 추도문을 낭독하면서 인용한 구절을 여기에 옮겨볼까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번 사이언스 컬처로드를 통해 우리는 지난날의 과오들과 희생자들을 돌아보고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우리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어 이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 천문대에서 ...

## 2학년 사이언스 컬처로드

글 | 21109 김승환

사이언스 컬처로드는 보인고등학교를 대표하는 과학캠프다. 2017년 6월 10일 오후 5시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은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중미산 천문대로 출발했다.

천문대에 도착한 후, 학생들은 숙소에 짐을 놓고 시청각실로 모여 강연을 들었다. 첫 강연은 천문대를 주제로 다뤘다. “중미산 천문대는 왜 굳이 별과 가까운 산봉우리에 짓지 않고 산 속에 지었을까?” 천문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학생들은 고민을 하다 이 질문에 결국 답을 찾지 못했다. 천문대를 산 속에 지은 이유는 바로 ‘도시에서 오는 빛 공해’ 때문이다. 천문대를 산봉우리에 지을 경우 밤에 도시의 빛이 천문대를 비추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측을 하기 힘든 반면 산 속에 지으면 봉우리가 도시의 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관찰할 수 있다.

다음 선생님은 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서 찍은 지구 밖에서 본 지구의 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지구의 대륙은 대부분 노란색 빛으로 덮여 있었다. 앞서 말했듯 도시의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서는 천문대가 밤하늘을 제대로 관측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밤에 빛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곳 중 한 곳인 칠레에서 2025년 완공 예정인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망원경이 될 ‘거대 마젤란 망원경’을 짓고 있다. 참고로 한국천문연구원도 이 망원경 건설에 참여하여 완공되면 1년에 1달 동안 관측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우리나라 천문학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강연을 듣고 저녁 식사를 한 후 다시 모여서 망원경을 조립하는 법을 배웠다. 망원경을 조립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처음에 삼각대를 핀 후 그 위에도 가대를 꽂는다. 다음 경통을 가대에 연결한 후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추를 설치하고 관측대상을 더 쉽게 찾게 해주는 파인더를 설치하면 된다. 완성된 망원경을 들고 밖으로 나가 목성을 관찰했다. 망원경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별처럼 흰 점으로 보였다.

망원경을 정리하고 천문대 옥상으로 올라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에 대해 배웠다. 오리온자리, 용자리, 거위자리 등을 발견했고 카시오페이아자리와 북두칠성을 이용하여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전파 망원경을 통해 카시오페이아자리와 오리온자리 그리고 거대망원경으로 목성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나중에 선생님께서 한 전파 망원경을 달을 관측할 수 있게끔 고정 시켜서 접안렌즈에 휴대폰 카메라를 대고 달을 찍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기상 후 태양을 관측하러 다시 천문대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도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태양을 관측했는데 그냥 보면 실명의 위험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 필터를 끼고 관측했다. 흑점을 보기를 원했지만 11년 주기로 볼 수 있는 거라서 아쉽게도 관찰하지 못했다. 관측하고 나서 언제 어디서 어느 별자리를 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천체 지도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시청각실로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강연을 들었다. 선생님이 천체 프로그램으로 지구에서부터 태양계의 행성들, 지구에서 보이는 별, 은하 그리고 지구에서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우주를 보여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작고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닫게 해주었다.

비록 1박2일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과학시간에 교과서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천체, 별자리를 사이언스컬처로드를 통해 천문대에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면서 천문학이 딱딱하지 않은 재미있는 학문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하면 좋겠다.



# 들어보기만 해보았던 사관학교에 대해 알아보자

## 육군사관학교 방문기

각자 군인이라는 꿈을 품고 학교 곳곳을 돌아다녔다. 개방지역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지만 학교의 분위기와 특징, 역사를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글 | 11230 전승원

9월 24일 약 20명의 학생들이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에 견학을 갔다. 두 시에 도착했지만 행정안내소에서 약 한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가이드가 도착해서 탐방을 시작할 수 있었다. 행정안내소 2층에는 저렴한 가격에 치킨, 돈까스 등을 파는 식당이 있었고 1층에 텔레비전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었다.

먼저 육사기념관에 갔다. 육사기념관은 육사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1996년 개관한 곳이다. 7개의 테마관과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고, 외벽에는 졸업생 명단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육사의 역사, 생도들의 생활 등을 엿볼 수 있는 인상 깊은 장소였다. 생도들의 복장을 직접 착용해보는 기회도 가졌는데, 미래의 모습이라고 상상해보니 흥분되었다. 지하에는 육사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및 전공분야에 대한 설명과 생도들의 기숙사를 본뜬 장소가 있었다.

다음으로, 육군박물관에 갔다. 육군박물관은 국방 문화유산 보존과 국민 교육을 위해 1956년에 지어진 군사전문 박물관이다. 2개의 전시실에는 고대 및 근·현대 군사 유물 1,290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총기, 대포 등 무기 등을 실물로 볼 수 있었다. 1층에는 육군사관학교에 관한 영상을 보는 영화관 같은 장소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예장교를 육성하는 육군사관학교의 영상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육군박물관에서 나온 후 화랑대를 한 바퀴 돌고 육사본부를 보았다. 화랑대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화랑의식이 열린다고 한다. 좀 더 걸어가니 미사일, 헬기, 탱크 등의 전쟁유물들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놀라웠다. 헬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행되던 것이어서 육사 외에 다른 장소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최신식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백년탑도 보았는데 매년 졸업생중 가장 성적이 뛰어난 한명의 이름만이 새겨진다고 한다.

육사의 곳곳에는 여러 동상들이 세워져 있었다. 강재구 소령, 심일 소령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동상이었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애국심을 가진 군인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도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점들이 찍혀있었는데 가이드 분께서 두 점 사이를 두 걸음에 가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걷는 것조차 질서 있는 모습은 군대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강재구 소령 동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이것은 1965년 월남 파병을 앞두고 수류탄 훈





런 중 부하가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을 안고 장렬히 산화한 강재구 소령의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동상이다. 졸업생들은 각종 기념행사 때에 동상에 헌화하여 고인의 거룩한 넋을 기리고 있으며 매년 모범 전투 중대장 및 생도를 선발하여 '재구상'을 수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졸업식 날 이 동상의 목에 가장 먼저 꽃다발을 거는 생도는 진급이 잘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육사를 한 바퀴 돈 후 생도회관을 들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생도회관에는 기념품가게, 매점 등이 있었다. 기념품가게에는 공책, 배지, 옷 등등 문구류가 많았는데 가격이 비싸 구경밖에 하지 못했다. 반면, 매점(PX)은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점이라서 시중가의 절반 혹은 절반보다 저렴했다. 모두들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는 모습에 공감할 수 있었다.

육사 탐방을 이로써 종료했다. 개방지역이 많지 않아 일부분밖에 구경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육군사관학교가 목표인 학생들이 모여 의지를 다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 1,2학년 진로체험의 날 이모저모

담당자 | 21008 김준형, 20134 정원빈, 20207 김성훈, 20125 이승재

## 1학년

### 성균관대학교 대학탐방

10월 27일 금요일 오늘은 학교에서 수업이 아닌 대학을 직접 탐방해보고 체험활동을 하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진로 적성 검사와 진로 컨설팅 관련된 강사의 2시간에 걸친 열띤 강의를 듣고 11시쯤에 우리는 성균관대에 가는 지하철에 올랐다. 지하철을 두 번이나 갈아타 40분에 걸쳐 도착한 성균관대는 옆에 대학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었고 우리처럼 탐방을 온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성균관대에 정문에서 사진을 찍고 대학을 둘러보았는데 몇몇의 현대식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궁궐 같은 기와집 형태의 한옥이었다. 우리나라의 전통 집이다 보니 더 멋있게 느껴졌다. 생각보다 대학이 우리가 생각했던 학교(중, 고등학교)와는 달리 크기가 매우 커서 놀랐었다. 그래서 탐방을 하는데 다리도 아파서 힘든 점이 있었다. 힘들기는 했지만 새로운 점도 많이 알게 된 활동이어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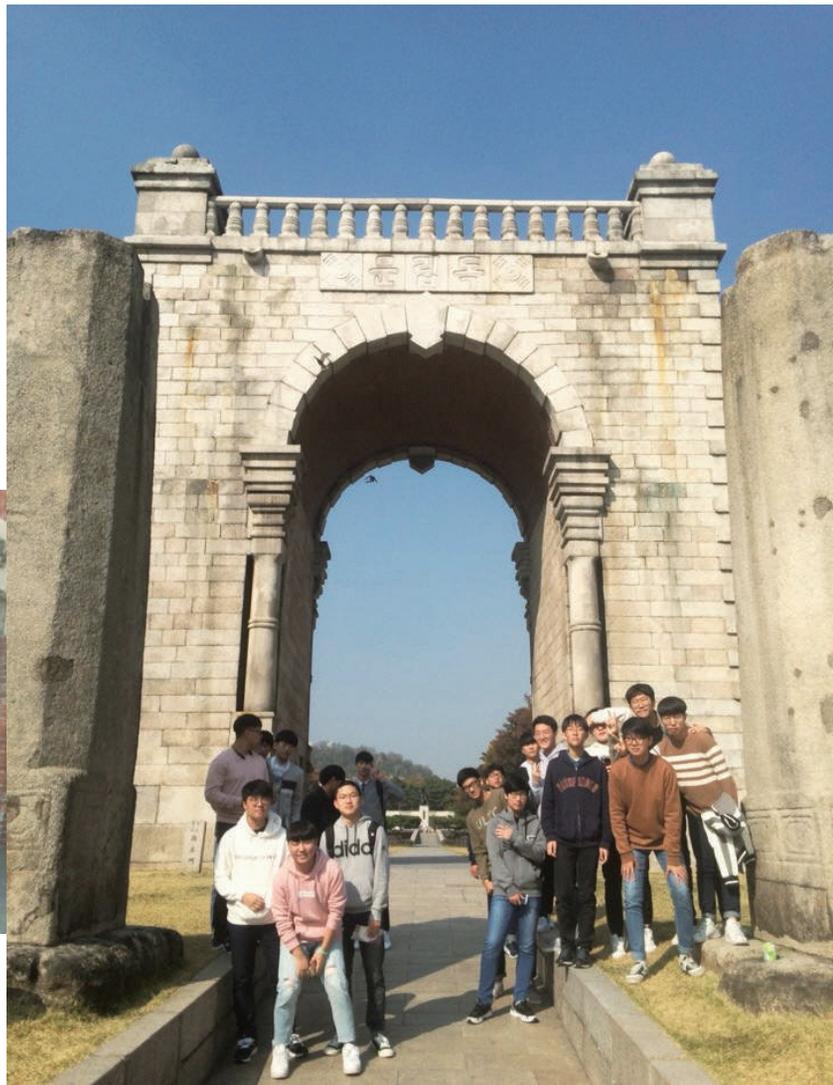


## 2학년

### 서대문 형무소

민주화 운동가들의 희생의 현장, “서대문 형무소”

2017년 10월 27일 진로체험의 날을 맞아 각자의 희망 전공에 맞는 진로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일제 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독립 운동가들과 해방 이후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고자 싸웠던 민주화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르고 희생당했던 서대문 형무소를 견학하였다. 그 후 인근의 서대문형무소와 마찬가지로 독립공원 구역에 있는 독립문으로 이동하여 단체 사진을 찍었다. 짧아서 아쉬웠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다.





**2학년**

**DDP, 돈의박물관**

길고 긴 시험이 끝난 주의 금요일인 10월 27일에는 2학년 학생들이 진로체험학습을 갔다. 각 분야로 나뉘어 여러 분야의 대표 기관, 지역을 다녀왔는데, 그 중 상경 분야는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기간에 맞추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돈의박물관마을을 견학하여 평소 하기 힘든 많은 경험들을 하고 왔다. 서울을 무대로 세계의 도시들이 도시문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소유와 소비를 넘어 공유와 생산의 도시비전을 제시한다. 미래도시의 현주소, 현재 세계적인 도시들의 건축 방향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상명대학교 탐방**

10월 27일 상명대학교에서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범대학교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학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사범대학교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진행하는지 소개를 받았다.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 상명대 사범대에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상명대학교 사범대학은 인적자원 육성과 교육전문가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교육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교육과는 모두 학교에서 계획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정규 교육 외에도 학술 답사나 세미나, 스터디, 학술제, 학술지 발간 등 여러 활동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국어교육과 강의 청강 시간에서는 수행평가를 참여하는 학생의 입장이 아닌,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교사의 입장이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가지고 활동을 시행하였다.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웠던 문학 작품들을 통해, 색다른 수행평가를 제작하는 것이 목표 이었다.

**대학로 문화예술 탐방**

문화예술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15여 명의 보인고 학생들은 10월 27일 금요일, 대학로 무료전시 <강익중, 내가 아는 것>을 관람하였다. 형형색색의 정사각형 타일로 빼곡히 도배된 벽을 바라보니 전시장이라기보다는 놀이동산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많은 타일로 뒤덮여 있는 '타인들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호기심에 발걸음을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서울시청 탐방(공무원)**

진로체험의 날 공무원 분야를 선택한 문.이과 학생 총 7명은 김현열 선생님 지도 아래 공무원들이 모여 일하는 서울시청 답사에 나섰다. 공무원이 된 분과 면담을 기대했던 학생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고위 공무원님과 만나서 조언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청 내부에서 역사를 알아보고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가서 공무원이 일하는 환경을 보며 그 정취를 느끼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기로 하였다. 서울 시청의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아무래도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이 모여 있고 또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다보니 넓은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공무원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들어가 보았던 것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시청에서 시청을 소개해주시려 나오신 강사분도 친절하신 설명으로 이해가 잘 가게 해주셨다. 시장님 방 앞까지 갔지만 시장님을 뵙진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미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은 아니었지만 동기부여가 되고 의지를 북돋아주는 시간이었다.

#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농촌 봉사활동



2017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의 농촌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탔다. 버से에는 2학년 1반부터 12반까지 여러 반의 친구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와의 만남에 반가운 마음과 봉사를 간다는 들뜬 마음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첫날 목을 숙소인 천안 상록수리조트 유스호스텔로 출발했다. 숙소로 이동 하던 중 우리는 숙소 근처 식당에서 저녁으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었다. 식당에 도착해 음식을 보자 우리는 자리에 앉기 무섭게 재빨리 음식을 먹고 계속해서 추가로 음식을 주문해서 주인아주머니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인아주머니의 시원한 서비스 덕분에 푸짐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든든히 배를 채운 뒤, 우리는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친구들과의 자유 시간을 가졌다. 자유시간 덕분에 우리는 마치 수학여행에 온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와 지금 같은 반인 친구들이 한 곳에 있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대화와 게임을 통해 서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1박 2일 간의 농촌봉사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도시에서만 살던 아이들이 농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 나 또한 도시를 벗어나 좋은 체험을 한 것 같아서 뿌듯했다.

글 | 20207 김성훈



본격적인 봉사활동은 둘째 날부터 시작되었다. 6시 30분, 마치 학교에 가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시간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숙소에서 아침을 먹은 뒤 1학년은 공주시 유구면 명곡리에, 2학년은 공주시 유구면 탑곡리로 향했다. 봉사 활동은 인원을 나누어 역할을 정했다. 마을 회관 청소, 농촌 길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등의 활동을 하였다. 농촌 길은 쓰레기가 없어 깨끗했다. 쓰레기를 줍는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찾기 위해 풀 사이사이도 찾아보았지만 거기에도 쓰레기는 없었다. 한 블록 건너 쓰레기통이 있는 서울과 달리 쓰레기통도 드문 농촌 길에 쓰레기가 거의 없는 것을 보아 마을 어르신들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봤던 시골 풍경은 마을 회관과 집들이 산과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적했다. 봉사활동 중 하나인 잡초 뽑기를 하기 위해서는 트럭을 타고 이동해야 했다. 트럭을 타고 이동하면서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운기나 트랙터를 볼 수 있었다. 잡초 뽑기에서 봤던 잡초는 우리가 생각했던 조그마한 잡초들이 아닌 엄청난 크기의 잡초여서 우리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다.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가 각자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열심히 일하고 나니 허기가 졌었는데 마을 어르신들께서 짜장밥과 제육덮밥을 점심으로 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먹은 뒤 우리는 예상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여 이른 시간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번 농촌봉사는 서울에서는 해보기 힘든 활동을 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 뜻깊은 경험이었다.





## 따뜻한 마음이 퍼지던 그날, 꽃동네 봉사활동

글 | 20712 김영무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날 여러 곳에 퍼졌다.**

2017년에는 3월 18일, 4월 15일, 6월 17일, 10월 28일의 나흘 동안 신청자에 한해서 가평 꽃동네 봉사활동이 있었다.

나는 이 중 6월 17일에 꽃동네를 다녀왔다. 작년 봄에 한 차례 봉사 활동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봉사를 하면서 고되고 힘든 와중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성취감과 보람 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버스에서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편으로는 혹여나 봉사 중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다.



봉사하는 당일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보된 날이었다. 이른 아침(7시 20분)에 출발하는 버스에서 70명 정도의 학생들의 모습은 설레 보이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들이었다.

약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봉사 장소인 꽃동네에 도착했다. 꽃동네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알려면 일단 꽃동네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한다.

꽃동네는 쉽게 말해 사회복지 시설이다. 노숙자를 포함해 조현병(정신분열증)환자, 몸을 가누기 힘든 지체장애인까지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이 무료로 입주해 살 수 있는 하나의 집이자 병원과도 같은 요양소이다.

꽃동네는 크게 사랑의 집(노숙인요양원), 평화의 집(노인요양원), 환희의 집(정신요양원), 희망의 집(장애인요양원), 노체 자애 병원(자애 병원), 은총의 집(지적장애인시설)으로 구분이 된다.

이번(6월 17일) 봉사활동에서 우리는 희망의 집과 은총의 집에 가게 되었다.

나는 이번 봉사활동에서 희망의 집 1층 중환자 병동을 배정받았다.

이전에는 2층은 여자, 3층은 남자 층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방도 많아진 것 같고 맨눈으로 보기에 훨씬 깨끗해져서 봉사를 시작하는 마음이 한결 좋았다. 우리 모두 시설이 좋아졌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희망의 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환자분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방을 청소해드리거나, 물이나 커피를 타다 드리는 등 일상생활의 소소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주된 봉사다. 단순히 보면 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양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일단 병동에 처음 봉사를 하게 되면 각각의 방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일과를 시작한다.

인사를 드리면서 작년 봉사 활동 때 만났던 환자분들을 몇몇 알아볼 수 있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를 알아보진 못해 아는 체를 하진 못했지만, 인사를 드리면서 작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환자분들과 가까워지니, 시설에서 지내는 외로움 때문인지 우리 봉사자들의 존재가 반가워서인지 그분들은 우리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셨다. 꽃동네를 오시게 된 계기, 꽃동네 생활 등, 손주 뻘인 우리에게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들려주신 이야기의 내용은 즐겁고 유쾌한 내용도 있지만 힘들고 고단한 내용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식사를 도와드린 것이다.

식사를 도와드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밥을 떠먹여 준 경험이 없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던 경험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손이 떨려 흑여



나 실수를 하여 그분들을 불편하게 할까 긴장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진짜 고맙네”라고 떨고 있는 나에게 따뜻한 말씀을 건네 주셨다. 순간 긴장했던 손이 그 한 마디 말에 사르르 녹았다.

그 후 남은 몇 시간 동안 같은 곳에 배정 받은 학생들과 함께 청소를 하고, 환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꽃동네에서의 9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다. 버스에서 각자 자신이 하루 동안 경험한 얘기들을 풀어놓으면서 버스 안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달구었다.

버스가 출발한 지 한 시간 정도가 흐른 후, 버스 안에서는 봉사활동으로 지쳐서 자는 많은 학생들과 이어폰을 꽂고 창문을 바라보는 몇몇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넬슨 만델라가 한 말이 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몸을 쓰고 땀을 흘리면서 단순 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가 아닌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이번 가평 꽃동네 활동을 통해 느꼈다. 다른 친구들도 그렇지 않을까 한다.

아직 꽃동네를 가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자기성찰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꽃동네 봉사활동을 추천하고 싶다.



## 보인고의 전통, 대주토론대회

우리 학교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중 하나인 대주토론대회, 올해 대회에서 우승한 친구들을 찾아가보았다.

클 | 10518 유대건

인터뷰 대상자 (1학년 대주토론대회 우승팀 멤버)

11003 권우진

11024 이상언

11025 이순겸

**PLAYBOIN(이하 PB)** 다른 반 친구들과 나가도 되는데, 어쩌다 같은 반 3명끼리 함께 출전하게 되었어?

**우진** 처음에 토론 대회가 나와서 누구랑 고민하고 있었지 그런데 순겸이가 먼저 같이 하자고 말하더라고

**순겸** 그냥 같은 반 친구들과 나가면 따로 찾아가서 의논 할 필요도 없고, 반에서 뛰어난 친구들이라 미리미리 접선해서 내가 스카우트를 했지

**상언** 그리고 같은 반이다 보니 평소에도 서로 대화 할 기회가 많잖아 이런저런 이야길 하다가 대회 공지 나온 거 보고 같이 신청했지

**PB** 반 애들끼리 모였어도 부딪혔을 때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어?

**상언** 어려웠던 기억은 없는데? 라고 말하면 당연히 뺑이고, 팀원들이 토론 대회에 나가본 경험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상 무임승차 하는 거 같아서 되게 어색하고 민망했어.(뺑뺑하다는 표현은 속어라 기사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몫이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고, 토론 대회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면서 부족한 걸 채웠지.

**순겸** 우리 대회 준비 기간이 시험 기간이라 시간이 부족했는데 상언이랑 우진이가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 해줘서, 나도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었어

**PB** 너무 순조로웠던거 아니야? 우승 되게 쉬웠나봐? ㅎㅎ

**우진** 에이, 우리 열심히 했어, 우승 과정이 힘들었지만 더욱 열

심히 해서 우승한 거야. 사실, 쟁점 세 가지를 정해야 하는데 순겸이랑 상언이가 주장하는 쟁점이 달라서 정하기 어려웠어, 사이에서 내가 중재해야 되니까 나도 힘들었어, 그거 말고는 딱히 문제는 없었고, 순조롭게 준비 할 수 있었어.

**PB** 그럼 토론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해줄래?

**상언** 각자 떠오른 쟁점을 조사해 보고, 틈틈이 대화하며 쟁점의 틈을 보완하려 했지, 같은 반이다 보니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의견을 나눠 보는데 적은 시간이지만 꽤 도움이 되더라고, 그리고 자료는 대부분 사건과 기사를 이용했고, 김영만 선생님께서 공개해주신 논문 사이트 DbPia를 이용했어, 이번 기회를 통해 김영만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아낌없이 전해준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해

**우진** 점심시간에는 회우정에서 서로 자기 주장을 말해보고 반론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고 입론서를 체계적으로 써서 입론서 위주로 준비했어.

**PB** 다음번에도 대회에 참가한다면 지금과 같은 팀원끼리 나가고 싶어?

**순겸** 보다 다양한 친구들과 토론해보고 싶어서 아마 다른 아이들과 나갈 것 같아

**상언** 가능하면 같이 나가겠지만 이번 대회를 참가하면서 시간이 많이 들어서 마음 먹고 나가야 될 거 같아

**우진** 나는 물론 하면 좋겠지만 한번 우승을 하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다음번에는 영어 토론 대회에 나가고 싶어.

**PB** 그래 인터뷰해줘서 고마워



# 보인고의 자랑, 보인고의 미래

글 | 11117 신현민

## TED란 무엇인가?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오락, 디자인, 기술에 관한 강연회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엔 과학에서 세계적인 이슈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연을 열고 있다. TED의 유명세를 타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강연이 개최되고 있으며 TEDx 라는 형식으로 독자적인 강연회를 하기도 한다. 초대되는 강연자들은 각 분야의 유명 인사 혹은 모두가 인정할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보인고등학교에서도 얼마 전 TEDx 대회가 진행되었다.

## 우리학교에서 진행되는 TED는?

2017년 7월 18일 각 학급별로 선정된 12명의 발표자들이 400명에 이르는 학생들과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자신이 준비한 연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를 하게 된 학생들은

각 반별로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된 논리 시간에 친구들의 평가를 받아 뽑혔다. 친구들의 추천으로 참가하게 된 TED대회만큼 모든 발표자들이 여러 번의 사전 준비를 거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힘썼다. 이번 TED대회에서는 환경, 역사, 생활상식, 발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TEDx 행사는 “웃음을 동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의 연설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웃음의 포인트를 살린 발표라고 모두가 느꼈을 것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표 덕에 모든 학생들이 재미있게 강연을 들을 수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다. TED대회를 위해 노력한 12명의 친구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자료 출처 : 위키백과)





## 2017학년도 1학기 독서 골든벨

클 | 11230 전승원



2017년 7월 20일, 보인고등학교 대주관에서 독서골든벨 행사가 있었다. 보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했고, 약 40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했다. 독서골든벨에 출제된 도서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박영희)
- 광장 (최인훈)
-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최재천)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독서골든벨 대회는 문제를 틀려 탈락하게 되면 양옆에 배치된 의자로 가고, 가끔씩 주어지는 패자부활전의 문제를 통해 다시 우승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한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며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욕을 높였다. 행사는 4시 경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상대로 쉬운 축에 속했지만 몇몇 학생들이 틀리면서 웃음을 자아냈다. 약 세 번의 문제를 푼 후에 패자부활전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여서 그런지 정말 간단했다.

패자부활전에서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상식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탈락한 학생들이 쉽게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문제를 틀려서 양 옆에 앉게 되었을 때 자유롭게 간식을 먹을 수 있었던 시스템은 탈락을 아쉬워하던 많은 학생들을 위로해주었다. 패자부활전을 통해 학생들이 탈락과 부활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오랫동안 탈락하지 않으며 잘 맞추던 학생이 후반부에 허무하게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연출되어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 된지 40분 정도 됐을 무렵, 대부분의 학생들은 탈락하여 의자에 앉아있었다. 남은 학생들은 단 다섯 명. 앞에서 많은 패자부활전이 있었기에 많은 학생들이 다음 기회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학생들의 기대와는 달리 더 이상의 패자부활전은 없었고 남은 다섯 명만으로 대회는 진행되었다. 긴장감은 점점 더해져갔다.

살아남은 학생들은 문제를 끊임없이 맞춰나갔다. 승부가 나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한 명, 두 명 오답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최후의 2인이 가려졌다. 최후의 2인은 그 뒤로도 약 다섯 문제를 맞추며 승승장구했지만 그 다음 문제에서 승부가 가려지게 되었다. 탈락한 학생들은 우승한 학생에게 축하를, 서로에게는 위로를 건네며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된 행사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들 한다. 우리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학문적 소양을 넓혀주며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번 독서골든벨 대회는 평소에 독서가 부족했던 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려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지만 40명 정도 밖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독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상품과 교양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우승’을 위한 12반의 여정

공부는 잠시 내려놓고 피구왕이 되어보자

글 | 20227 윤영식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슴이 뛰고 기다리게 되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많은 학생들이 축구 경기인 대주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두 코트로 나눠져서 공으로 서로를 맞추고 공을 피하는 피구경기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꿀잼요소(?) 중 하나이다. 이번 피구시합은 조금 달라진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게임의 재미를 높였다. 주요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작할 때는 중앙선에서 점프볼을 해서 공격권을 정한다.
2. 선을 밟을 경우 상대방이 공을 맞았더라도 무효로 하고 공격권을 상대방에게 넘긴다.
3. 코트 밖에서 공격을 할 때 공이 정해진 선을 넘어가면 공격권을 상대방에게 넘긴다.

처음에 조별 리그방식으로 이뤄지는 대주컵과 다르게 피구 대회는 12개의 반을 4개의 조로 나눠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되었다. A조에는 4반, 10반, 11반이 B조에는 1반, 3반, 9반, C조에는 2반, 6반, 7반, 그리고 D조에는 5반, 7반, 12반이 우승을 위해 경기를 하였다. 강당에서 치열하게 진행된 경기에서는 열띤 응원과 멋진 플레이가 가득하였다. 간간히 나온 친구들의 재미있는 실수는 웃음을 주면서 경기에 재미를 더해주었다. 조별 예선을 통해 10반, 9반, 5반, 2반이 4강에 진출했고, 옆 반끼리의 경기에서는 9반이 승리를 하였고 2반과 5반의 경기는 2반이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올라갔다. 학교의 사정으로 결승전 경기는 풋살장에서 진행되었지만 결승전은 문과반과 이과반의 대결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려서 각반의 재미있는 응원도 있었다. 첫판을 2반이 가져가면서 우승에 한발 가까이 다가서는 듯했지만 9반이 다음번 판을 따내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9반은 플랜카드까지 들고 나와 응원전을 펼쳤는데, 그 기운 덕분인지 마지막 판에서는 9반이 끝까지 집중력과 경기력을 발휘해 뒷심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공부만 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다 같이 맘을 흘리고 우승을 위해 노력하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 답은 ‘승부차기’다

기승전 승부차기

글 | 20106 이영택

격년으로 열리는 대주컵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대주컵이 열리지 않는 해에는 교내 스포츠클럽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학생들은 대주컵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의 응원, 참여를 보여주면서 스포츠클럽 행사에 재미를 더해주었다. 올해 2학년 축구 대회는 조별리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비뽑기를 통해 나눠진 A,B,C,D의 4개 조에 열두 개의 반이 3반씩 편성되었다. 각 조의 3개 반이 서로 겨루고 세 반 중 승점이 높은 두 반이 올라가고, 그 뒤로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었다. 강팀으로 평가되는 반의 대결을 놓고 죽음의 조가 편성되었다는 등, 역대급 꿀조라는 등 많은 말들이 오갔다. 조별리그에서는 실력, 운, 컨디션같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승부를 갈랐으며, 세 반중 두 반이 올라가는 조별리그 방식 덕분에 대부분의 반들은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조별리그, 토너먼트 구분 없이 많은 경기들이 승부차기로 결과가 정해졌고, 8반과 10반의 결승전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국 8반이 치열한 경기,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토했다. 이번 스포츠클럽 2학년 축구는 중간에 시험 기간 때문에 잠깐 끊겼지만, 끝까지 뜨거운 열기로 유종의 미를 거두며 마무리 되었다.



# 블랙홀에 대하여

SCIENCE 1

글 | 10404 김정현

최근 인기를 끈 <인터스텔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등 영화의 주요 소재로 블랙홀이 등장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에 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련 책이 과학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세월이 좀 흘러서인지 요즘은 대중의 관심이 그렇게까지 뜨겁지는 않은 듯하지만, 여전히 우주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블랙홀은 인기 스타이다. 블랙홀에 대해 점점 알아갈수록 우주의 정체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블랙홀의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우주의 신비를 모두 알아내는 때가 될지도 모른다.

## 블랙홀에 대해서

태양 질량의 30배가 넘는 무거운 별은 중력 붕괴형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을 때 중심핵이 중성자별로서 존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붕괴하며, 결국은 블랙홀이 된다. 블랙홀의 내부에는 밀도와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 특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무한대로 깊어지며, 블랙홀의 중심부에서 어느 일정 거리까지 접근하면 탈출 속도가 광속을 넘어선다. 이 거리를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고 부른다.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 만드는 구면이 '사건의 지평선'이다. 이 구면 내부에 광원이 있다 해도 빛은 결코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블랙홀은 블랙홀이 되기 전에는 색, 크기, 온도가 있는 물질로 구성된 평범한 천체이다. 그러나 블랙홀이 된 순간 질량과 각운동량, 전하 이외의 모든 물리량을 잃는다.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에서 볼 때 모든 블랙홀은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을 지니며 구별이 되지 않는다.

## 블랙홀의 발견

블랙홀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시기는 1967년이다. 카를 슈바르츠실트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이 되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 특수한 해를 이끌어낸 때가 1916년이므로 약 반세기 동안은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은 채 이 천체의 이론화가 진행되었던 셈이다. 처음에 블랙홀은 이론상의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블랙홀에 끌어들여진 물질이 고속 회전하면서 빠져들 때 강한 엑스선을 방사하는 예가 확인되었고, 현재는 상당수의 블랙홀과 후보군이 발견되었다. 최초의 발견 사례는 백조자리의 X-1이다. 태양의 30배나 되는 질량을 지닌 거성에서 빛을 발하지 않는 별로 대량의 가스가 흘러들고 있었다.

### 블랙홀의 소멸

과거에는 블랙홀을 영원불멸의 존재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블랙홀이 조금씩 질량을 잃어 증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74년 스티븐 호킹이 주장한 이론으로, 일반상대성이론을 기반으로 논의되어 온 블랙홀 이론에 양자론을 가미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언뜻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폴 디랙의 이론에 입각한 양자론에 따르면 미시 영역에서는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서 에너지를 방출하며 소멸하는 쌍소멸과 에너지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한 세트 로 만들어지는 '쌍생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호킹의 말에 따르면 블랙홀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이런 쌍생성이 일어난다. 이때 탄생한 입자와 반입자 중에서 입자는 멀리 날아가 사라지고 반입자만이 블랙홀로 떨어진다면, 반입자는 블랙홀의 내부에서 입자와 충돌해 쌍소멸할 것이다. 외부에서 보면 이것은 마치 블랙홀에서 물질이 도망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블랙홀은 줄어든다. 블랙홀은 영원하지 않으며 최후가 있는 존재임이 증명된 것이다.



1. 인터스텔라 영화 이미지
2.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등장인물
3.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구현된 블랙홀의 모습
4. 카를 슈바르츠실트

# 모르지만, 알 것 같은 우리 생활 속의 과학 원리

SCIENCE 2

글 | 11117 신현민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인간은 과학, 수학, 언어 등 여러 분야의 원리를 이용하여 삶을 발전시켜왔다. 그 중에서도 과학의 원리는 우리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사람의 삶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만큼 우리가 느끼고 알아채지 못하는 과학의 원리가 많다. 이 글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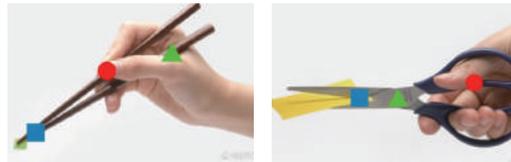
## (1) 자석

자석의 쓰임새는 매우 다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석의 유용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냉장고, 문, 화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장난감과 다양한 종류의 로봇 등에 사용되는 자석의 정확한 의미는 철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는 물체이다.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존재해서 서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당기는 성질이 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일상생활 속의 예는 선풍기의 날개를 들 수 있다. 선풍기 안에 들어 있는 전동기 속에는 자석이 있다. 그리고 이 자석의 안에는 철심을 둘러싼 전선이 존재한다. 이 전선에 전기가 흐르면 철심은 막대자석으로 변하여 전동기 안에 있던 자석과 서로 밀어내며 선풍기의 날개가 돌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자석의 쓰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며, 시간 또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2) 지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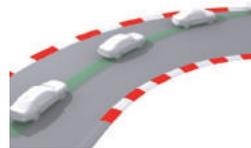
지레는 막대의 한 점을 받치는 받침점을 중심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장치를 일컫는다. 지레의 3요소는 힘이 직접 작용하는 지점인 힘점, 지레를 받쳐주



는 지점인 받침점, 그리고 지레가 물체에 힘을 작용하는 지점인 작용점이 있다. 과학 수업도 아닌데 지레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3요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레의 쓰임이 다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동거리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받침점과 힘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지레를 사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받침점과 힘점 사이의 거리가 먼 지레를 쓰기도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레는 어느 곳에서 쓰이고 있을까? 아마 지레의 쓰임에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지만 가위와 젓가락에 지레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가위와 젓가락을 쓰면서 어떤 원리가 사용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 (3) 원심력



원심력은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나타나는 관성력이다. 다시 말해 원심력은 실제로 원심력이라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인 관성에 의한 일종의 효과이다. 원심력을 느끼는 예를 찾아보면, 차를 타고 커브길을 돌 때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커브 바깥쪽으로 쏠리는 힘을 받게 된다. 이 쏠리는 힘은 실제로 가해지는 힘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느끼게 된다. 바로 이것이 원심력의 원리를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예이다.

##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면

글 | 11107 김종현

수면이란 우리 생활 속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습관이며 우리 몸의 휴식시간이다. 수면은 사람에게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 수면을 하지 않으면 뇌에 휴식이 부족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수면에도 여러 가지 종류와 단계가 있다. 우리는 이 단계를 항상 거치지만 수면하는 동안 그 과정을 느낄 수가 없다. 이제부터 수면의 단계와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첫 번째로 얇은 수면, 제 1 수면 단계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쉽게 수면에서 깰 수 있으며 초저 수준의 수면상태이다. 제 2수면은 1수면 보다 깊은 수면으로 근육이 이완되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단계이다. 2수면이 끝나면 더 깊은 수면인 3, 4 수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30, 40 분이 지나야 오는 수면이고 피곤할 때 이 수면 상태까지 가면 10분을 자도 개운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렘 수면이 있는데 꿈을 정확히 기억 할 수 있는 수면이다. 몸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신체가 완전하게 휴식을 취하는 단계이다. 이때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REM(rapid eye movement)이라는 이름을 따왔다

고 한다.

이것이 수면의 단계들이다. 수면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수면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건강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수면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장시간 낮잠을 피해야 한다. 장시간 낮잠은 수면 리듬에 안 좋은 영향을 줘서 다음날 몸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원래 낮잠은 15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우리학교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교의 오수(낮잠)시간도 길지 않고 적당하게 수면할 수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의 수면 최적 온도는 17도에서 18도라고 한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나와서 신체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것이 좋고 또 손발을 이불 밖으로 내서 온도를 낮춰 주는 것도 좋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많이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다. 수면 전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이 수면하는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므로 좋지 않다. 술 또한 수면에 좋지 않다. 가끔 어르신들 중 잠이 안와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술은 수면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활동을 느리게 해서 졸음을 느끼게 한다. 억지로 수면을 재촉하면 수면 패턴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에게 수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휴식시간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면을 할 때 위에 말한 최적의 수면 방법들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보다 더 개운하고 편안한 수면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날 하루도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들에게 중요한 집중력,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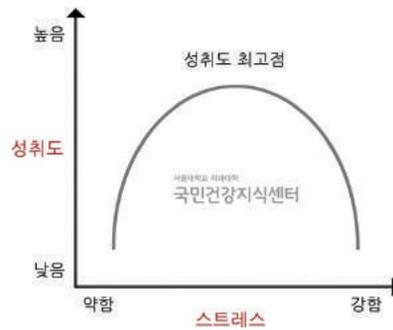
SCIENCE 4

글 | 11117 신현민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는 머리가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통념과 달리 두뇌는 다 비슷한 수준이기 마련이다. 어쩌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의 IQ(지능지수)가 하위권 친구들의 것 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적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일까? 투자한 시간, 노력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집중력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집중을 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다. 이렇게 집중이 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변 환경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집중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의지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곤 했다. 사실 공부를 하려는 의지는 누구나 있지만 주변이 심하게 소란스러운 경우 집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즉 학생들에게 있어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시험범위를 짧은 시간 안에 완벽히 숙지한 채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효율적인 공부, 즉 집중해서 하는 공부방법이 필요하다. 각종 칼럼과 스터디카페에서 언급되는 집중력향상법은 학습계획서를 작성하고 내용중심적인 계획을 쓰는 것이다. 내용중심 계획표를 짜게 되면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갖고 공부하게 되므로 효과적이다. 우리 보인고등학교에서도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때 세부적인 내용까지 열심히 적어,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교내시상까지 하게 된다면 성취감은 배가 될 것이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또 다른 공부법은 책상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공부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고 나서는 그때그때 치워가면서 공부하고, 꼭 필요한 것만 책상위에 놓는 것은 오직 공부 그 자체에 온 정신과 신경을 쓰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공부할 때 듣는 음악도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흔히들 알고 있는 클래식보다는 듣던 음악이 집중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먼저 처리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익숙한 음악은 뇌가 정보처리를 위해 음악에 집중하거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유명한 클래식이라 하더라도 처음 듣는다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음악과 더불어 먹는 음식 역시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적정량의 카페인 함유된 차는 뇌에 긍정적인 자극이 된다. 또한 공부를 하면서 껌을 씹는 것은 뇌에 자극을 주어 집중을 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가 공부 도중에 이루어진다면 공부 효율은 높아진다. 국민건강지식센터가 밝힌 바로는 과하지 않은 스트레스는 공부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정도를 넘는다면 정신이 몽롱해지며 집중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방금 전 공부한 내용도 기억을 못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취미생활, 체조, 산책과 같은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는 효과적인 공부에 필요한 요소이다.

위의 정보를 고려하여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수동적으로 살아가며, 주입식교육만을 받는 사람은 능동적이지 못한 생활이 악순환 되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능동적인 태도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공부를 해야 효과적인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자료: 국가건강지식센터, brain research brain 1992, wiki How)

# 반도체 시장의 선두, sk하이닉스에 대하여

TECHNOLOGY 1

글 | 11107 김중헌



1. 회사 전면부 2. 공장 전경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인 sk하이닉스가 일본의 도시바를 인수해 반도체 시장의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도시바는 반도체 산업 2위를 자랑하는 큰 회사였지만 심각한 재정난으로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인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난을 겪게 되고 결국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도시바는 경영에는 실패했지만 기술력만큼은 손꼽히는 회사이고 세계 반도체 산업 2위라는 타이틀을 지녔던 회사이기에 sk하이닉스는 도시바를 인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림을 보면 도시바 인수에 영향을 받아 sk 하이닉스의 주식이 크게 오르고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이번 선택이 도박이라는 부정적인 말들도 나오고 있다. 몇 가지 결점 때문인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도시바의 기술이 아직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시바에서 낸드 플래시라는 3D기술이 발명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시제품 하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회사의 경영권이 아직 도시바 쪽에 있어서 하이닉스는 실질적으로 경영 참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도시바가 발표한 영문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최소 10년간 도시바의 기술과 산업기밀들에는 접근을 금지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이상 소유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전했다. 아직도 일본계 기업들이 도시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과반수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며 그들은 도시바의 경영권은 놓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하이닉스의 선택이 불려올 결과가 너무 불투명하다며 걱정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sk 회장 최태원은 한화 4조를 투자해서 도시바 인수의 뜻을 결연히 보여주었다. 이번 결정이 sk하이닉스에 정말 좋은 영향을 불러왔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sk하이닉스가 더 성장해서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양대 산맥을 이뤘으면 한다.

# 태블릿, 어느 것이 좋을까?

## TECHNOLOGY 2

글 | 11115 신우엽

요즘 들은 휴대성, 편의성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만큼 많은 전자기기가 발명되어 왔다. 그 중에서 넓은 화면을 자랑하는 태블릿에 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럼 태블릿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제품은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패드 5세대 9.7 사이즈의 태블릿이다. 이 제품의 장점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다. 아마 애플사의 제품 중에서 최고 가성비를 자랑하는 상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가격이 싸다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상품은 2017년 05월에 출시되었으며 5세대라는 이름값을 하는 정도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 저렴한 가격에 큰 화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세밀한 기능이 꼭 필요하지 않고 영상을 보는 용도, 즉 인터넷 강의를 보는 용도로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격은 32GB 기준 40만 원 이하이다.



두 번째 제품은 마찬가지로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패드 프로 2세대 제품이다. 이 제품은 10.5와 12.9 사이즈가 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비싼 만큼 그 값을 발휘하는 제품이라고 한다. 기능 중 가장 좋아진 점을 설명하자면 초당 120장의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120Hz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 Hz가 높을수록 고사양의 앱들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으니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K에 해당하는 동영상까지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고 배터리 용량이 11080mAh여서 전문적인 일들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 카

메라 기능은 태블릿 기준으로 가장 좋고 아이폰 7과 비교했을 때 맞먹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아이패드 프로 2세대는 전문적인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업무적인 용도로 쓰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한국에 2017년 7월에 정식 출시되었고 가격은 64GB기준 100만 원 정도 라고 한다.



다음 제품은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에서 만든 삼성 갤럭시 탭S3라는 제품이다. 9.7이라는 적당한 사이즈이고, 아이패드와 가격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더 저렴하다. 2017년 5월에 나온 최신 제품이다. 게다가 삼성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4096개의 필압으로 나누어진 S펜이 장착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세계적인 오디오 전문 브랜드 'AKG'의 음향 기술이 적용된 4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차원이 다른 음질을 제공하며, Super AMOLED가 장착되어 화면을 또렷하게 표현하고 자연색에 가까운 컬러를 나타낸다고 한다. 좋은 기능과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므로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은 약 55~60만 원 정도이다. 이처럼 각각의 기업이 자신들만의 색깔을 담은 태블릿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 기술 경쟁과 가격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되면 좋겠다.



# 우리 미래의 선두자

##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

TECHNOLOGY 3

글 | 20621 유민재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에 있다. 이세돌을 무참히 꺾은 알파고, 인간이 만들어 내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 빅데이터, 상상하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 내는 3D 프린트 기계 등 우리 실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발전해 가고 있고 곧 사용할 것들의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scope)에 더 빠른 속도(velocity)로 크게 영향(impact)을 끼친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

제4차 산업혁명은 경제, 일자리 등 우리 생활의 전반을 차지하는 것들을 좌지우지 할 것이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는 필수이다.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각 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 미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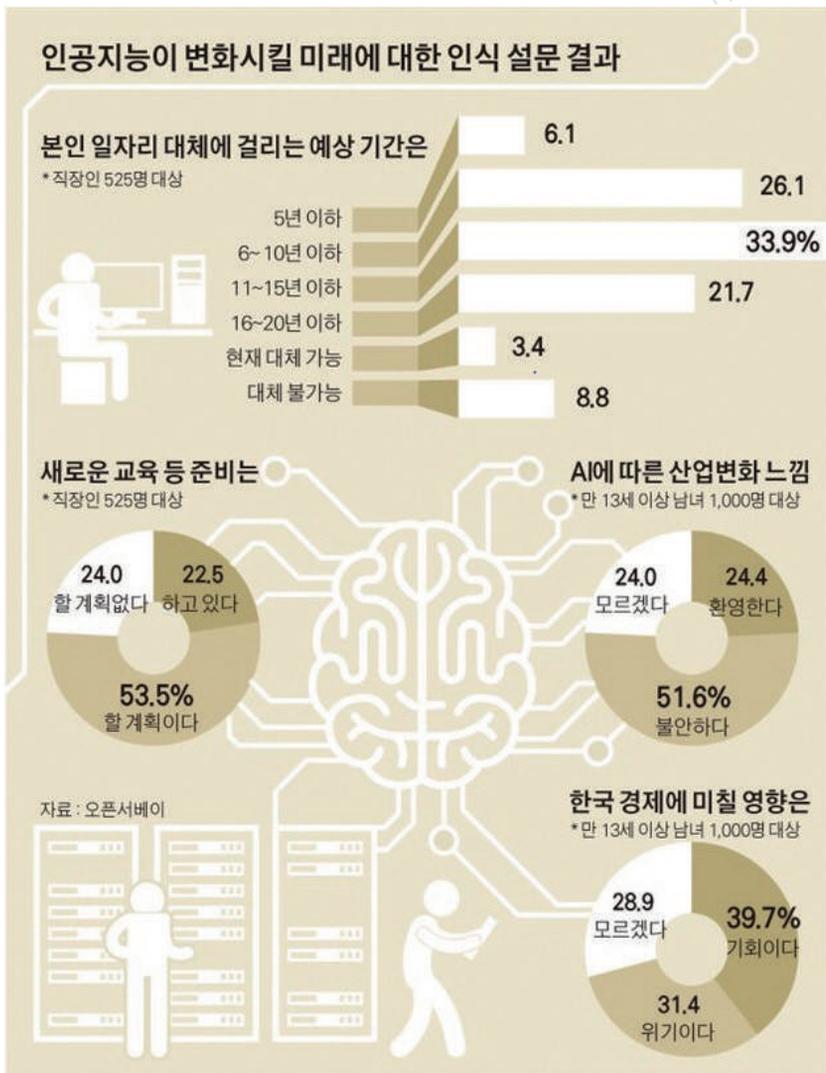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 SK의 NUGU, KT의 Genie, 삼성의 빅스비, 애플의 시리 등 이미 여러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산업에 뛰어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 인공지능이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은 개념적으로 강 인공지능(Strong AI)과 약 인공지능(Weak AI)로 구분할 수 있다. 강AI는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자아를 지닌 인공지능을 말한다. 인간처럼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범용(평범한)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라고도 한다. 강AI는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형 인공지능과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지각·사고하는 비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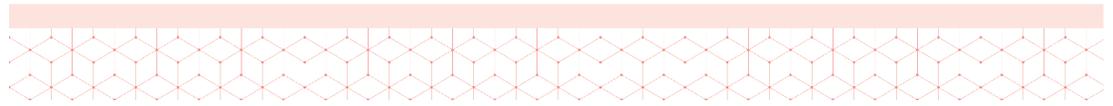
형 인공지능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약AI는 자의식이 없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주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형태로 개발되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나 의료분야에 사용되는 왓슨(Watson)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은 모두 약AI에 속하며, 자아를 가진 강AI는 등장하지 않았다. 약AI 분야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일자리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며칠 전 한국일보에 실렸던 기사에 의하면 크든 작든 인공지능이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90%를 넘었다. 그만큼 인공지능 로봇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자리 유지를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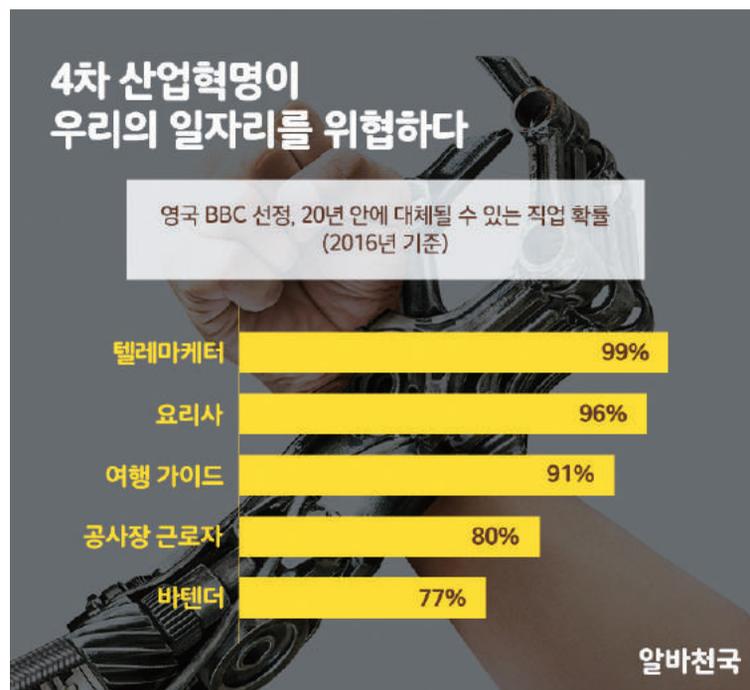


(출처 한국일보 기사)



이렇듯 우리가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변화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 한다면 불안감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를 맞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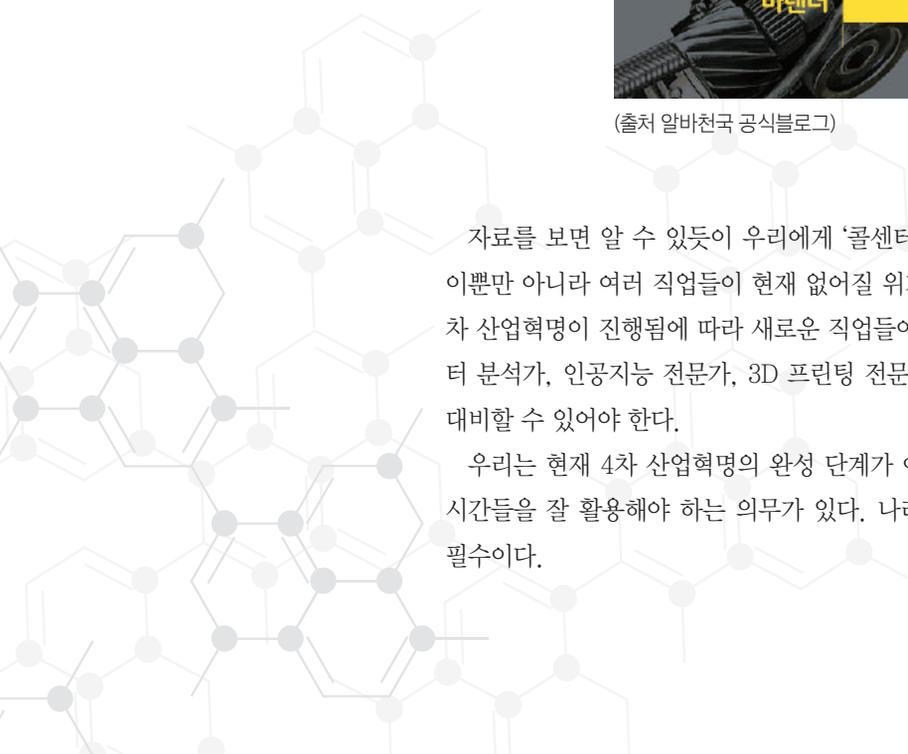
그렇다면 미래 전망이 좋지 않은 일자리는 무엇이 있을까? 영국 매체 BBC는 인공지능 일자리로 20년 안에 대체될 수 있는 직업과 그 직업과 그 직업이 사라질 확률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다.



(출처 알바천국 공식블로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콜센터 알바’로 익숙한 텔레마케터가 사라질 확률은 무려 99%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직업들이 현재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렇지만 직업들이 없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유망한 직업들이 생길 것이다.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 분석가, 인공지능 전문가, 3D 프린팅 전문가와 같은 과학적 전문직들이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완성 단계가 아닌 중간 길에 있다.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비와 준비는 필수이다.



# 매일 접하는 아리수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TECHNOLOGY 4

글 | 21109 김승환



아리수 정수센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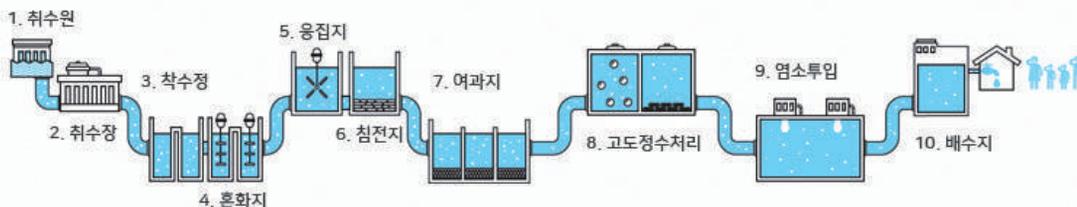


아리수 제조 시설

2017년 여름 보인고등학교에서 기존에 있던 정수기가 사라지고 새로 아리수가 설치되었다. 아리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거나 마셔봤을 물이다. 하지만 아리수를 마시다 보면 이 물의 맛이 평소 마시던 물과는 많이 다르다는걸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혹시나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걱정에 아리수에 대하여 조사해봤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이 어떠한 물이고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지 알아보자.

### 아리수란?

아리수는 1908년 9월 1일 고종황제의 명에 의해 미국인 콜브란과 보스워이 폭섬에서 지은 정수장에서 공급하기 시작한 서울의 수돗물이다. 옛 삼국시대 때 고구려에서 한강을 ‘아리수’라고 불렀는데 2004년부터 이 ‘아리수’가 서울의 수돗물의 이름이 됐다. 아리수는 현재 서울시민의 편리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로 공급되고 있다.



## 아리수는 어떻게 공급되나요?

1. **취수원** 아리수의 원료는 팔당댐부터 잠실 수중보 상류의 한강물이다.
2. **취수장** 취수장에서 강물을 끌어들이 아리수정수 센터로 보낸다.
3. **착수정** 취수장에서부터 도착한 원수를 안정시키고 수량을 조절하는 곳으로 수질에 따라 분말활성탄 등을 투입하여 혼화지로 보낸다.
4. **혼화지** 착수정에서 보내온 물에 적정량의 정수처리 약품을 넣고 섞는 곳이다. 정수약품은 제한 입자들 (콜로이드성 물질)을 큰 덩어리로 뭉치게 해준다.
5. **응집지** 약품과 탁질이 잘 섞이도록 물을 서서히 저어주면 탁질이 엉겨 붙어 크고 무거운 덩어리 (플록)가 만들어진다.
6. **침전지** 응집지에서 크게 형성된 덩어리를 가라앉혀 맑은 윗물을 여과지로 보내는 곳이다.
7. **여과지** 침전지를 통과한 물을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시키면 물속에 남아 있던 작은 입자들마저 깨끗하게 걸러진다.
8. **고도정수처리** 오존과 입상활성탄 공정으로 오존의 특성인 강력한 산화력과 활성탄의 특성인 탁월한 흡착력을 이용한 처리 공정을 거쳐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만든다.
9. **염소투입** 여과된 깨끗한 물에 소량의 염소를 넣어 소독한다.
10. **배수지** 배수지는 아리수정수센터에서 보낸 물을 각 가정으로 보내기 전까지 저장하는 중간 물탱크다. 주변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으며, 배수관을 통하여 각 가정으로 수도물을 나누어준다.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도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때를 대비하여 물을 저장하는 역할도 한다.

## 아리수 과연 안전한가요?

6개 취수장에서 취수원의 조류(클로로필-a)와 페놀 등 7항목을 질자동측정기를 통해 24시간 동안 원수 수질을 감시하고 있고, 구의취수장에는 물벼룩을 이용해 독극물을 감시하는 생물경보장치도 사용되고 있다. 또 기름유출 등으로 수질오염물질이 원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취수장 주변에 기름 유입을 막는 방지막을 설치하여 수질을 보호한다. 그리고 아리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70개 수질검사 항목에 모두 적합하다고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과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의 167개 항목 수질검사결과 미국 EPA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내려졌다. 또한 정수된 수도물의 수질이 저하되지 않게 각 가정이나 학교 시설에 공급하는 수도관도 정기교체를 해오고 있다.

## 아리수의 맛이 달라요.

아리수 홍보관에 의하면 수도물 생산과정에서 소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염소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지금까지 정수장에서 한차례 실시하던 염소소독을 정수장에서 최소한의 양으로 1차로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2차로 배수지, 가압장 등에서 다시 최소한의 양으로 분산주입 함으로써 염소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재염소 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소독 냄새를 줄이고 맛을 늘렸다고 한다.

학교에서 아리수를 잘 마시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아리수를 마시지 않고 따로 물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맛이 다르다고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리수는 공식적으로 안전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물이고 서울을 대표하고 있는 수도물인 만큼 우리 모두 아리수를 마시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읽어보았으면 하는 도서 <정해진 미래>

SOCIETY 1

## 저출산 문제

글 | 11115 신우엽

요즘 들어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더불어 저출산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960년 이후에 정부의 산아 제한 정책과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해 출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저출산이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아직까지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아봐서 그럴 것이다. 그럼 이제 저출산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심각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 국가별 합계 출산율

단위: 명, 가임 여성 1인당 출산 자녀수



저출산이 생기게 된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즉 출산 가능인구에 속하는 청년들이 실업난에 휘말려 경제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어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다. 사실상 결혼은 한다 해도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라는 부담과 맞벌이 부부도 있기에 아이를 돌봐줄 시간이 부족하여 사회적 압박감으로 인해 아이 낳기를 꺼려하게 된다. 심지어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현상도 초래할 수 있고 다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좋은 정책과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보육비와 양육비 지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세금을 줄이는 정책, 육아 휴직을 늘리고 기업에서 육아 휴직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함,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는 데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해결책들이 잘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먼저 국민들은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위험 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을 해결한 다른 나라의 정책들을 살펴보자. 먼저 스웨덴은 공공 보육시설과 보육교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90% 정도의 교육 기관을 국공립시설로 만들어 가계의 교육비 부담률을 10% 수준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근로시간 단축 권 등 다양한 육아를 위한 정책들을 입안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해결 방안은 여성들이 일자리와 육아 병행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육아에만 전념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고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탁아 서비스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된다. 여성들은 탁아소나 베이비시터를 고용, 공동위탁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국가는 여성들이 선택한 방법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이 두 나라의 성공 사례를 통해 정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국민들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저출산과 다른 여러 사회 문제들은 서로서로 악순환을 하는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다른 사회 문제들도 차례차례 점차 회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노력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결국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가 하루 빨리 나서서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잘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저출산 관련 책에 따르면 국가의 노력이 없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불과 몇 백년 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저출산에 대해 위험 의식을 갖고 국가의 정책과 같이 더불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저출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 주고 싶다. 이 책은 제목뿐만 아니라 목차까지 읽고 싶게 하는 호기심이 생기는 흥미진진한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아주 자세히 배울 수 있다. 게다가 인구학자가 쓴 책이라 색다른 부분으로 저출산을 바라봐서 흥미롭다.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 남고와 여고 왜 구분하는 것일까?

SOCIETY 2

글 | 21103 김도윤



우리 보인고등학교는 남자 고등학교(이하 남고)이다. 남고란 무엇일까? 우선 주위를 둘러보도록 하자. 많은 친구들이 보인다. 엷어져 자고 있는 친구들, 열심히 떠들고 있는 친구들,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얼굴도, 목소리도, 성격도 제각각 다른 이 친구들에게도 공통점은 있다. 그렇다. 그들은 모두 남자이다. 이것은 우리 학교의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이며, 동시에 많은 학생들의 불만거리이기도 하다. 가뜰이나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여학생들과의 단절은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지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남고라는 개념은 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번에는 남고와 남녀공학 등의 역사 및 유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교육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과 수정이 있었지만, 역사 시간에 배울 수 있듯 교육은 고대 문명에서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학교 역시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조선에는 조선의 수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과거 시험까지 존재했었다. 공부하는 과목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변하고는 했지만 어느 시대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항상 존재해왔다. 그렇다면 초기 문명의 학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초기 문명사회에서는 그 시대적 특성상 보인고등학교와 같은 남자용 학교가 주로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2·3차 산업이 발전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몸을 사용하는 능력보다 두뇌를 사용하는 능력과 아이디어가 중시되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제약 없이 모두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1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던 초기의 문명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사냥, 농사 등의 신체 노동에 있어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유교가 발달했던 동아시아에서는 ‘남존여비’, ‘칠거지악’\* 등 지금 보면 지극히 차별적이고 어이없는 말들이 당연시되었던 만큼 그 정도는 더 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평등과 같은 근대적 개념들이 등장했고,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했던 교육 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 시작은 종교개혁 이후의 서유럽이었다.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던 시대, 로마의 가톨릭교회는 모든 계급의 아이들, 즉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무료 초등학교를 설립했으며, 몇몇 개신교 단체들은 남녀 아이들 모두에게 성경을 가르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남녀 공학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미국 내 대부분의 공립학교들이 남녀 공학이 있을 정도로 ‘평등한 교육’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한국에도 흘러들어왔고, 2017년 상반기 기준 서울의 고등학교들 중 약 50%의 학교들이 남녀 공학을 채택하고 있을 만큼 한국에서도 남녀공학은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 물론 이성교제 등으로 인한 성적 하락을 걱정해 남녀공학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영향으로 남고나 여고들 역시 아직 많이 남아 많은 청소년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말이다.

우리는 아직 성장기에 있고, 이성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남고라는 체제가 답답하게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남고에도 남고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으며 낭만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의미 없는 불평들을 늘어놓기보다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남고에서만 쌓을 수 있는 추억들을 하나 둘씩 착실히 쌓아나가도록 하자.

\*칠거지악: 조선시대의 악습. 아내를 내칠 수 있는 7가지의 근거를 이르는 말이다.



# 계절에 따라 골라듣는 재미가 있는 명곡 LIST

## MUSIC 1

글 | 20712 김영무

공부는 하기 싫고, 가만히 있자니 심심한 요즘, 음악에 한번 빠져보는 것이 어떨까? 삶이 무료할 때 필자가 각 계절별로 추천하는 노래들을 들어보면서 하루를 달래보자.

### 봄 **봄** **봄** **봄** 오고...

#### 봄봄봄 (로이킴)

처음으로 추천할 봄에 어울리는 노래는 로이킴의 '봄봄봄' 이라는 노래이다. 한국인이 라면 한번쯤을 들어봤을 이 노래를 봄 하면 생각이 나는 노래로 선정했다.



#### 벚꽃엔딩 (버스커 버스커)

“봄바람 휘날리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간간히 따라 부르는 가사인데, 벌써 이곡이 나온지 5년가량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날이 되면 차트를 역주행하는 이노래, 봄에 어울리는 노래로 뽑지 않을 수가 없다.



#### 바람이 불어오는 곳 (故김광석)

한번 들어보면 “아~이거”할 노래이다. 경쾌한 기타소리, 맑은 하모니카의 연주까지 봄날 들뜬 마음을 더욱더 들뜨게 해줄 노래이다.



#### 유자차 (브로콜리너마저)

위에서 봄날 분위기를 즐기는 신나는 노래를 추천했다면, 이번에는 약간은 차분한 노래를 소개 시켜줄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노래지만, 브로콜리너마저 만의 감성에 빠지게 된다면 헤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 여름 **더운 여름날 여행이 생각나는 그 노래**

#### 한여름밤의 꿈 (레이나, San E)

노래가 나오자마자 여름날 음악차트를 휩쓸었던 그 노래, 레이나와 산이의 찰떡같은 목소리의 케미로 고막을 힐링 할 수 있던 노래이다. 여름 열대야 가운데 간간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같은 이 노래를 추천한다.



#### 비행기 (거북이)

“비행기 타고 가요~” 모두들 추억속의 멜로디라고 생각한다. 가사와 마찬가지로 여행을 가고 싶은 여름날에 어울리는 노래이다. 비록 공부 때문에 가기 힘들수도 있지만 여행가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행복해 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 콩다리 사바라(클론)

귓속에서 맴도는 그 멜로디 ‘콩다리 사바라 빠빠빠...’ 굉장히 단순한 가사들이지만 풀죽은 여름날 이 노래를 듣게 된다면, 저절로 흥이 나고, 리듬을 맞추고 있는 내 다리를 보고 놀랄 것이다.



#### 여수 밤바다(버스커 버스커)

앞서 신나는 음악들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여름밤 나의 감성을 폭발 시켜줄 수 있는 노래를 소개하고자 한다. 잠자기 전 침대에서 이 노래를 듣고 있다가 눈물을 훔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





가을 이번에도 도진 가을병..

가을이 오면 (이문세)

가을하면 생각나는 노래, 가을하면 들어야 하는 노래, 바로 '가을이 오면'이다. 사실 가사는 가을과 연관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지 모르게 아침 햇살, 싱그런 바람 그리고 작품의 분위기가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한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가을이 오면을 추천한다.



가을 아침 (양희은)

몇 달전 아이유가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대중 앞에 알려진 노래이다. 가사와 같은 가을아침의 풍경은 보인고 재학 중에는 느끼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듣고 있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 해가 뜬 아침을 맞고 있는 기분이 든다. 노래 제목처럼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이 노래가 가을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가을방학)

인디계의 스테디셀러 가을방학의 1집 앨범의 수록곡이자 가을방학이라는 밴드의 대표곡이다. 가을의 막바지의 시원한 듯한 날씨, 하지만 약간은 쓸쓸하고 추운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이다.



음악 첫 도입부에서의 피아노 반주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을 찬바람으로 스쳐가는 듯 하고, 밴드 보컬(계피)의 특유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콕콕 찢어준다.

밴드이름과 같이 가을방학은 가을감성에 관한 많은 노래들을 불렀으니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겨울 차가운 마음을 달래줄 그 노래

지친하루. (윤종신)

얼마 전 '종니'로 히트를 친 윤종신이란 가수의 장기 프로젝트인 월간 윤종신의 '2014 월간 윤종신 12월호'에 수록곡이다. 각종 시험이 끝난후 1년을 뒤돌아 보고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겨울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마음 한편 이 우울한 날이 있다. 그때 이런 위로곡을 들어보는건 어떨까. 찬 바람 부는 겨울날 이 노래를 추천한다.



눈의 꽃 (박효신)

드라마의 OST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효신의 눈의 꽃을 겨울 날 들을 노래로 추천한다. 눈의꽃은 일본 가수 나카시마미카의 곡 '유키노하나'를 리메이크한 곡으로, 곡의 잔잔한 분위기와 박효신 특유의 호소력 깊은 보이스가 어우러진 겨울 노래다. 제목부터 겨울 향기를 물씬 풍기는 눈의 꽃은 매년 겨울마다 음반 차트를 역주행 하는가 하면, 발매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길거리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다.



바람이 분다 (이소라)

필자는 겨울에 생각나는 목소리, 가수를 고르자면 이소라가 가장 먼저 생각한다. 듣다보면 가슴 한편어딘가가 아린(?)느낌이 드는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 있다고 느껴진다.



'바람이 분다' 이곡은 이소라 특유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잘 녹여낸 노래라고 생각한다.

겨울날 이소라의 곡을 들으면서 겨울감성에 빠져보자.

# 계절별 듣기 좋은 음악 추천

## MUSIC 2

글 | 20134 정원빈



‘한 주에 한두 번, 수 계절 동안 음악에 영혼을 담가 보라, 몸을 육조에 담그는 것과 같은 효과가 영혼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올리버 웬델 홈즈 교수의 말처럼 음악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주는 필수요소가 되었다. 길을 걷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의 분위기에 맞춰 다양한 노래들이 귀에 속삭이는데, 그와 관련하여 각 계절별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노래들을 몇 곡 소개하고자 한다.

### ‘설레임 가득 머금은 꽃들의 향연’ - <봄>

#### 1. 볼빨간사춘기 - 프리지아



‘봄’ 하면 연상되는 것은 단연 예쁜 꽃들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 순수한 사춘기 감성으로 아름다운 봄을 이야기 하듯이 노래하는 곡 하나를 소개한다. 기약 없이 떠나간 소중한 존재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씩 있을 것이다. 볼빨간사춘기의 ‘프리지아’ 는 그 소중한 것들을 프리지아 꽃에 비유하여 여전히 그 꽃들을 잊지 않고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노래이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따뜻한 봄에 어울리는 위로와 공감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봄에 듣기 좋은 노래로 소개하게 되었다. 특히 후렴구에 ‘햇살 밝은 날 그대와 다시 만나면 그때 내게 그 꽃을 선물해주세요’ 라는 설레는 노랫말은 모두의 가슴 한편에 잊지 못한 채 간직하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들어 진한 여운을 준다. 그밖에도 볼빨간사춘기만의 유니크한 음색이 돋보이는 ‘Full Album RED PLANET’에는 ‘심술’, ‘반지’, ‘싸운날’ 등 다양한 색깔의 상큼한 봄에 어울리는 곡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 그 시절 사춘기 감성에 빠지고 싶다면 한 번쯤 찾아들어보길 추천한다.

#### 2. 로이킴 - 봄봄봄

봄 봄 봄 봄이 왔네요~♪ ‘봄’ 하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멜로디, 캐논 변주곡을 차용하여 익숙한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봄 노래, 봄철 듣기 좋은 노래 두 번째는 바로 ‘봄봄봄’ 이다. 봄

이라는 계절이 오면 누구나 한 번쯤 설렘 가득한 상상을 해보



기 마련. 이 노래는 그 순수한 느낌을 멜로디에 아주 잘 녹여냈다. 게다가 로이킴의 훈훈한 외모와 달콤한 목소리가 더해져 많은 여성(女心)을 사로잡는 대표적인 노래이기도 하다. 2013년에 발매된 노래인데도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명실상부 봄 여운 가득 머금은 노래임을 증명하고 있다.

### ‘뜨거운 열정, 상쾌한 시원함의 공존’ - <여름>

#### 1. 버즈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그 시절 우리는 모두 버즈였다.’ 남성들이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찾는 가수, 바로 버즈의 보컬 민경훈의 파워풀한 기교가 돋보이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 여름 대표곡으로 빼놓을 수 없는 노래다. 시원한 바다를 연상케 하며 경쾌한 리듬에 맞춰서 당장이라도 캠핑이나 드라이브를 떠나고 싶은 느낌을 주는

마성의 노래. 특히 노래 중간에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were together’라는 가사는 민경훈의 발음과 관련하여 ‘활어회 소주 원샷 우럭 두 개 더’라고 들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하다.

## 2. 산이 - 한 여름밤의 꿀



여름 하면 생각나는 노래, 그 두 번째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대세 래퍼로 거듭난 산이와 오렌지 카라멜의 보컬 레이나의 듀엣곡, 모두의 무더운 여름 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달콤한 곡인 '한 여름밤의 꿀'이다. 두 남자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깨고 싶지 않은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이 너무 달콤하고 행복해서 마치 꿀과 같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랑 노래로, 이 노래 역시 여름 느낌을 물씬 머금고 있어 흔히 말하는 '연금 노래'의 부류에 속한다.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기존의 여름 노래의 틀에서 벗어나, 달달한 사랑 노래로 새로운 여름 노래의 장을 열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천고아비의 계절' - <가을>

### 1. 악동뮤지션 - 시간과 낙엽



단풍이 빨갛게 물 들어가며 만물이 풍성해지는 가을, 푹푹한 새싹과도 같았던 악동뮤지션이 서정적인 어쿠

스틱 기타 리프에 맞추어 가을의 느낌을 성숙하게 노래했다. '시간과 낙엽'을 가만히 들으며 몽환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가사에 취하면, 지나간 추억들이 떠오르며 가을의 시린 감성이 느껴진다. 가사가 매우 시(詩)적이어서 멜로디 없이 글로만 읽어 보아도 누구나 깊은 상념에 빠져볼 수 있는 멋진 곡이 아닐까 싶다.

### 2. 에일리 - 저녁 하늘

쓸쓸한 가을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 에일리의 '저녁 하늘'. 가을이 되면 밀려오는 그리움과 외로움, 슬픔으로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는 날 하늘을 바라보면 저절로 떠오르는 노래가 아닐까 싶



다. 특히 제목처럼 어두워진 저녁이나, 새벽녘에 들으면 그 감성에 더 깊게 젖을 수 있다. 가을이 오면 옆구리가 시리다는 말처럼 슬픈 노랫말로 감성을 자극하며, 에일리만의 쓸쓸한 목소리를 느낄 수 있는 곡이다.

## '음악을 통해 느끼는 추위' - <겨울>

### 1. 아이유 -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겨울 하면 누구나 크리스마스를 떠올릴 것이다. 그 설렘 가득한 겨울을 반겨주는 노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솔로 가수인 아이유가 축하해주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이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을 물들일 때의 설렘을 잘 표현



한 이 노래는, 발매가 된 지 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즌 송으로 사랑해주는 덕에 초겨울이 되면 귀신같이 차트 역주행을 시작한다. 겨울 크리스마스를 수놓는 캐럴이 식상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들어보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한다.

### 2. 박효신 - 눈의 꽃

대한민국에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눈의 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손꼽는 겨울 노래이다. 소몰이 창법으로 이름을 떨친 박효신이 2004년에 발매한 대표곡이기도 한데, 박효신은 최근 창법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니 박효신이 최근 콘서트에서 눈의 꽃을 부른 영상을 찾아보면 기존의 소몰이 창법으로 녹음된 음원과는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창법으로 부른 눈의 꽃이 낮은 톤의 굵은 목소리로 묵직한 감정을 노래한다면, 최근 창법으로 부른 눈의 꽃은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착각을 줄 만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담담히 노래한다. 박효신이 왜 신이라고 불리는지 그의 노래를 통해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 국민 라이언 킹 “이승엽” 원정 은퇴 투어

SPORTS 1

글 | 20207 김성훈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의 한국 프로야구 최초 은퇴 투어가  
8월 11일 대전에서 시작해 9월 30일 잠실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은퇴 투어는 은퇴를 앞둔 스타가 전국 구장에서 야구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박수를 받으며 아름다운 퇴장을 기념하는 행사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KBO 리그 역사의 여러 페이지를 장식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과 많은 선수들의 존경을 받는 이승엽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최초 은퇴 투어 레전드가 되었다.

이승엽 선수는 KBO에서 MVP 5회, 골든 글러브 10회, 한국시리즈 MVP 1회, 홈런왕 5회, 타점왕 4회, 득점왕 5회, 최고 출루율 1회, 최고 장타율 3회, 최다 안타 1회라는 영예를 안고 있다.

작년에는 이승엽 선수가 한·일 통산 600 홈런 금자탑을 세웠다. 63빌딩의 219배, 롯데 타워 132개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를 홈런으로 날린 것이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600홈런 이상을 친 타자는 8명, 일본 프로야구는 2명뿐이다. 이승엽 선수의 홈런 기록만 보더라도 그가 국내 최고의 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승엽 선수의 첫 은퇴 투어는 8월 11일 대전구장에서 시작했다. 경기장에 깜짝 등장한 한화 이글스 레전드이자 통산 210승의 주인공 송진우 전 코치는 이승엽 선수에게 ‘보문산 소나무 분재’를 선물했다. 보문산 소나무 분재는 이승엽 선수에게 의미가 있는 선물이다. 그 이유는 바로 한화 이글스 파크에서 이승엽 선수가 총 28개의 홈런을 날려 비 한화 선수 중 유일하게 홈런으로 보문산 정상을 넘긴 선수이기 때문이다.

수원으로 이어진 이승엽 선수의 2번째 은퇴 투어는 8월 18일에 진행되었다. 특히 수원에서의 은퇴 투어는 다른 은퇴 투어보다 의미 깊었다. 그날이 이승엽 선수의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kt 스포츠의 유태열 사장은 이승엽 선수 은퇴 투어 기념 현판을 이승엽 선수에게 전달했다. 현판에는 ‘삼성 라이온즈 36번 이승엽과 ‘진정한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라는 그의 좌우명과, 위즈 파크에서의 통산 구장에서의(의미 모호. 위즈 파크에 있는 통산 구장에서 세운 기록이라는 뜻?) 기록이 새겨져 있었다. 또한 kt 위즈의 주장 박경수 선수가 이승엽 선수가 타격을 하는 모습의 사진을 선물했다. 이승엽 선수의 타격 사진은 작은 508장의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어 더욱 멋있었다. 마지막으로 염태영 수원 시장이 이승엽 선수에게 화성행궁 화령전의 운한각을 그린 ‘인두화’ 작품을 전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에서 8월 23일 이승엽 선수의 3번째 은퇴 투어가 이어졌다. 넥센은 고척돔 잔디를 활용한 ‘스페셜 유니폼 액자’를 이승엽 선수에게 선물했다. 넥센 선수단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스페셜 유니폼 액자로 이승엽의 미래를 응원한다는 의미를 전했다. 넥센은 앞선 두 번의 이승엽 선수의 은퇴 투어와는 달리 경기에 앞서 선수단 전체가 36번 유니폼을 착용한 채 그라운드에 나와 이승엽 선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표실했다.

이승엽 선수의 4번째 은퇴 투어는 9월 1일 인천에서 진행되었다. SK와이번스 류준열 대표이사는 이승엽 선수에게 기념 동판과 디지털 액자를 전달했다. 액자에는 이승엽 선수와 SK의 첫 맞대결, 이번 마지막 맞대결 등 의미 있는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또한 염경엽 단장은 이승엽 선수가 지난 2013년 6월 20일 SK 행복드림 구장에서 KBO 리그 개인 통산 홈런 기록(352개)을 세웠던 장면이 담긴 스포츠아트 액자를 선물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승엽 선수 은퇴 투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선물은 ‘두 개의 캐리어’였다. 두 개의 캐리어에는 이승엽 선수의 등번호인 3과 6이 각각 새겨져 있었고 안에는 해먹, 폴라로이드 사진기가 담겨 있었다. 길었던 프로 생활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많은 곳을 여행하라는 의미를 담은 선수단의 선물이었다.

이승엽 선수의 5번째 은퇴 투어는 9월 30일



잠실에서 진행되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SK에 이어, 이현승 선수와 니퍼트 선수가 이승엽 선수의 대형 사진 액자에 두산 선수단의 친필 사인을 담아 전달했고 유희관 선수와 오재원 선수가 이승엽 선수의 캐리커처 액자를 선물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두산 김태룡 단장의 선물인 '이천 달 향아리 도자기'였다. 두산 퓨처스 홈구장 베어스파크가 위치한 경기도 이천에서 직접 제작한 은퇴 기념 이천 달 향아리 도자기를 이승엽 선수에게 선물한 것이다. 도자기에는 이승엽 선수의 좌우명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가 새겨져 있었다.

이승엽 선수의 6번째 은퇴 투어는 9월 8일 사직에서 이어졌다. 타율 0.320 73홈런 210타점으로 특정 팀을 상대로 한 최다 기록을 세운 이승엽 선수이다. 이승엽 선수의 좋은 기억들이 많은 장소가 바로 사직구장이다. 특히 이승엽 선수가 2003년 한 시즌 홈런 아시아 신기록인 56개를 달성할 때 많은 팬들이 역사적인 홈런 볼을 잡기 위해 잠자리채를 가져왔고, 그가 사직구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많은 팬들이 잠자리채를 손에 꼭 쥐고 외야에서 그의 홈런을 기다렸다. 롯데 구단은 이때의 추억을 기억하고자 '순금 잠자리채'를 이승엽 선수에게 선물했다.

이승엽 선수의 7번째 은퇴 투어는 9월 10일 그의 제2의 고향인 광주에서 진행되었다.

KIA는 이승엽 선수의 은퇴 투어 선물로 '광주 무등구장 의자'를 준비했다. 이승엽 선수는 1995년 5월 2일 무등 해태전에서 4번 타자로 출전해 6회초 1사 후 이강철의 커브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아치를 그린 적이 있다. 19살 이승엽 선수의 프로 데뷔 1호 홈런이었고, KBO 리그 최다인 600홈런 대역사의 시작이었다. 비록 의자에 정확히 이승엽 선수의 홈런 타구가 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비거리로 낙구 지점을 계산해서 '전설의 시작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No.36 이승엽 데뷔 첫 홈런, 1995. 5. 2, 광주 무등야구장'이라고 적힌 명패를 부착해서 선물했다.

9월 15일 이승엽 선수의 깃발이 꽂힌 마산구장에서 이승엽 선수의 8번째 은퇴 투어가 진행되었다. NC는 '전설' 이승엽 선수의 마지막 마산 원정을 기념해 '36번 유니폼' 깃발을 마산구장에 게양했다. NC는 이승엽 선수의 은퇴 투어 선물로 창원을 상징하는 '누비자 자전거'를 이승엽 선수에게 선물했다. NC는 "누비자 자전거 모형에는 이승엽의 은퇴를 이별이 아닌 KBO 리그의 새로운 레전드 탄생으로서 창원 시민 모두가 축하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NC의 주장인 손시헌 선수가 두 번째 선물인 기념액자를 전달했다. 액자에는 이승엽 선수의 마산구장 타격 장면 사진과 함께 이승엽 선수가 마산구장에서 달성한 주요 기록, NC 선수들의 친필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레전드 이승엽 선수의 마지막(9번째) 은퇴 투어는 9월의 마지막 날인 9월 30일 잠실에서 펼쳐졌다. (LG와 두산이 잠실을 모두 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잠실에서 이승엽 선수의 원정 은퇴 투어를 두 번 하는 것이다.) 이승엽 선수가 데뷔 첫 안타를 친 잠실에서 이승엽 선수의 마지막 은퇴 투어가 펼쳐진 것이다. LG는 은퇴 투어 마지막을 장식할 선물로 이승엽 선수의 응원가가 내장된 '목각 기념패 스피커'를 전달했다. 잠실구장과 이승엽 선수의 타격 장면을 형상화한 기념패는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어 버튼을 누르면 이승엽의 응원가가 나온다. 이어 박용택 선수와 차우찬 선수가 나와 이승엽 선수가 LG와 경기했을 때의 사진으로 그의 등번호인 36을 만든 기념 액자를 선물했다. LG 선수들은 이 액자에 자필로 축하와 응원 메시지를 적었다.

이로써 이승엽 선수의 원정 은퇴 투어가 끝이 나게 되었다. 은퇴 투어를 마친 이승엽 선수는 "경기 종료 후에 간단히 팬들에게 인사하는 짧은 시간만 주어져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한국 야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9개 구단으로부터 받은 선물 모두 소중한 하다"라며 "감사하다"라고 인사했다.

국민 라이언 킹 '이승엽' 선수의 은퇴 투어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 손흥민 그리고 이승우

SPORTS 2

글 | 20207 김성훈

이 두 선수를 보면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우리 한국 축구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해 5월 말 막을 내린 프리미어리그 2016/17시즌의 탑 클래스 공격수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고, 이승우 선수는 백승호, 장결희, 황희찬 등의 선수들과 함께 우리나라 축구의 황금세대를 이끌 주역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Son claims EA SPORTS Player of the Month prize

14/10/2016



독일 볼프스부르크와의 '이적설'로 시작된 손흥민 선수의 2016/17시즌. 본인이 잘하고 있는 와중에도 팀 전술에 의해 출전할 수 없었던 시즌 중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정받는 공격수로 우뚝 서게 되기까지. 이번 시즌 그의 활약은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라고 요약 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입단 후 첫 시즌이었던 지난 2015/16시즌, 부상과 EPL 적응 등의 문제를 겪으며 팬들 사이에서 그의 토트넘 입단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느냐 라는 우려가 나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016/17시즌, 손흥민 선수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채 마무리됐던 첫 시즌의 모습과 달리 마치 보란 듯이 '실력으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그 예로 9월에 첫 선발 출전했던 스톡 시티전에서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그 달에만 4골 1어시스트의 맹활약

을 보여주며 당당히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8월 말의 이적설에서, 9월 '이달의 선수상' 수상까지, 단 한 달 만에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한 영국과 유럽의 평가는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에선 안 통할 것'이라는 비판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되고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점점 줄어드는 기색이 보이던 무렵, 그의 소속팀 토트넘에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우승팀 첼시의 콘테 감독이 꺼내들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유행하던 3백 시스템을 포체티노 감독 역시 시도하면서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가 '잉어'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잉어'자리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는 선수였고, 시즌 중 팀의 필요에 따라 다른 포지션에서 가끔씩 뛰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였기에 포체티노 감독의 이 시도는 손흥민 선수에게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분명히 물 오른 시즌을 보내고 있던 선수가,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닌 팀의 전술상의 이유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 손흥민 선수 본인도, 그를 지켜보는 팬들도 답답한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또 한 번 위기를 '실력'으로 극복했습니다. FA컵 위컴, 밀월전에서 서만 도합 다섯 골을 터뜨리며 필요할 때 '한 방'을



터뜨리는 능력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주포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빠지고 기존에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 경쟁자인 라멜라 역시 부상으로 전력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황에서 또 한 번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며 서서히 영국 언론으로부터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4월, 손흥민 선수는 4월 1일 번리 전에서의 골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지난해 9월에 보여줬던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며 이번 시즌에만 두 번째로 '이달의 선수'상을 또 한 번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즌 중간 중간에 있었던 어려운 상황을 모두 실력으로 극복해낸 손흥민 선수는 5월 18일 열린 레스터 시티전에서 시즌 20호 골을 터뜨리며 31년 동안 차범근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인 유럽 무대 최다 골(19골) 기록을 경신하여 본인의 실력이 단순히 '반짝'이 아님을 확실히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FA컵에서는 6득점 1어시스트로 6골을 기록한 할리팩스타운의 아담 모르간을 제치고 FA컵 득점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그의 행보는 이적설로 시작한 선수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시작했고, 프리미어리그와 FA컵에서 보여준 21골 7어시스트의 많은 공격 포인트는 말 그대로 하나의 멋진 '역전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 적응기를 거쳐 맹활약한 이번 시즌까지, 훨씬 더 성장한 그가 다음 시즌에도 그 드라마를 계속해서 이어가주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이승우 선수를 살펴보면 이번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을 통해 볼 수 있던 그의 활약은 '바르셀로나의 미래'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만큼 좋았고, 분명 동 나이 대 선수 가운데 탁월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루면서도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전매특허인 전진 돌파의 폭발력은 어떤 팀을 만나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상대가 대응법을 알아내기도 했고, 방향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종종 보였으나, 치고 들어갈 때 파괴력은 파울이 아니면 제어하기 어려운 일종의 '치트키'였습니다. 게다가 속도를 붙이고 달려 들어가며 시도 하는 슈팅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국내 선수 가운데 특출 난 선수라는 점은 확인했으나, 세계무대를 압도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잉글랜드, 포르투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잠비아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팀들의 동 나이대 선수들에 비해 피지컬과 경험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보여준 그의 모습은 미완의 인재라고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앞으로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더욱 멋진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었던 대회였고, 앞으로도 이승우 선수의 좋은 활약이 기대되는 대회였습니다.

## 최철순 현 축구선수

글 | 20207 김성훈



# 국대 주전 수비수,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다.

보인고등학교 제 96회 졸업생인 최철순 현 축구선수가 장학금 10,000,000원을 학교발전 및 후배양성을 위해 기부했다. 축구를 사랑하는 만큼 후배들을 아끼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최철순 선수는 2006년 전북 현대 모터스에서 데뷔하여, 스윙퍼에서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하였지만 새로운 포지션에 잘 적응하며 꾸준히 출장기회를 잡아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

남다른 투지와 승부욕, 성실하고 근성있는 플레이로 인하여 '최투지'라는 별명을 얻어 상대와 팀 사정에 따라 포백과 쓰리백을 오가는 전북 전력의 핵이 바로 최철순 선수이다.

2006년 19세 나이로 팀에 입단한 최철순 선수는 각급 대표팀에 선발되며 인정을 받았다. 일본 국제친선대회 U-19 청소년 대표, 부산컵 국제청소년대회 U-19 청소년 대표, AFC 아시아 청소년선수권대회 U-19 청소년 대표, U-20 월드컵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등에 발탁되었고,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현재는 러시아 월드컵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최철순 선수는 실력에 걸맞게 수상경력 또한 화려하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평생 한 차례의 우승을 하기도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철순 선수는 2006년 프로 데뷔 이후 수집한 우승 트로피만 무려 7개나 된다. 최철순 선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슈퍼컵 준우승 1회,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K리그 클래식 우승 4회, AFC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1회, K리그 챌린지 우승 1회,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 챌린지 베스트 11 수비수부문 1회,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 베스트 11 수비수부문 1회 수상의 영예를 안고 있다.

눈에 띄는 화려한 플레이를 하기 보다는 팀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펼치며 리그 4차례 우승에 모두 기여한 최철순 선수는 2015년에 국내 연봉 톱5 중에서 유일한 수비수가 되었다.

2017년 4월 16일에는 최철순 선수가 2017 K리그 클래식 6라운드 상주 상무와 경기에서 K리그 통산 300경기 출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1983년 개막 후 K리그에서 3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는 최철순 선수 포함 48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기록은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기록이고 많은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선수 최철순 선수의 장학금 기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펼쳐 우리나라 축구를 빛내 주기를 응원한다.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교정에 남긴 추억의 보따리들을

담당자 | 21008 김준형, 20125 이승재

## 앙케이트 관련 안내 사항

- 앙케이트 전달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달리 수록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 전달과정에서 학생 이름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경우 학번으로만 수록하였습니다.

## 담임 선생님 성함으로 삼행시 짓기

- |                         |                            |
|-------------------------|----------------------------|
| 류 : 류신형                 | 강 : 강한 추리력으로               |
| 신 : 신형아                 | 유 : 유명한을 조종하는              |
| 형 :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익명)   | 명 : 명탐정 코난 (익명)            |
| 이 : 이영석 선생님은            | 형 : 형님을                    |
| 영 : 영 못 잊을 것 같아요. 같이... | 미 : 미칠듯 사랑했던 기억이           |
| 석 : 석식 같이 드실래요? (장용성)   | 옥 : 옥과 같이 소중한입니다. (꼬북이)    |
| 김 : 김용진 선생님             | 이 : 이렇게                    |
| 용 : 용건은                 | 영 : 영특할 수가                 |
| 진 : 진짜로 간단히 해주세요 (박준형)  | 석 : 석가모니 뺨치는군! (11016 송민섭) |
| 하 : 하...                | 손 : 손호준 선생님은               |
| 지 : 지금...               | 호 : 호빵맨처럼                  |
| 연 : 연애하고 싶다.. (익명)      | 준 : 준수하게 생기셨다. (20524 윤정현) |

## 매점에서 인기 있는 메뉴 순위!

1. 찐만두
2. 브라보콘 초코
3. 물, 요맘때 아이스크림
4. 피크닉
5. 맛스타
6. 컵밥
7. 마시따
8. 피자토스
9. 망고 음료
10. 골드키위, 복숭아 녹차 음료수
11. 소시지
12. 불망떡
13. 알로에
14. 치아바타
15. 한라봉에이드
16. 시카고 피자
17. 캔디바



###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과 그 특징(유행어)은?

- 김응천 쌤 - 돋보이는 가슴근육, 복도의 스피크스, 사이값 정리/수업시간마다 복도 지나가는 사람 다잡음. 수학문제를 맞추어야 무사통과. 못 맞추면 “엎드려”.
- 김서원 쌤 - 뽕사리가 자주남
- 박희원 쌤 -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꿈인 거예요”, “훌륭하네요~”
- 서봉준 쌤 - “이따구로 할거예요(살거예요)?/ 미쳤어요?”
- 채성민 쌤 - “인생 그렇게 살래?”
- 이 찬 쌤 - “이 인간이 왜이래?, 니 나와”
- 고나리 쌤 - “일어나세요 잉~ 여이~”
- 양승범 쌤 - 우리보다 빼딱한 시각으로 교과서를 바라본다, “엎드려”
- 오양욱 쌤 - 항상 꽃꽂이 서 있는 남자
- 조희경 쌤 - “알겠냐~”
- 김영만 쌤 - “자...오케이”
- 김현열 쌤 - “음...그렇다/ 넌 그게 문제야”
- 손호준 쌤 - 촌데레이시다.

### 수학 여행 때 물(?) 마시고 본 재미있는 행동은?

1. 윗옷 벗고 물통 들고 셀카 찍기
2. ㅇㅇ야 나 가슴이 아파...
3. 아자르 하면서 소리 지름
4. 자기 폰 패턴을 못 푼다
5. 물 없는 욕조에서 구해 달라고 함
6. 차윤이 보고싶어..
7. 친구들한테 전화하기
8. 아무말 대잔치
9. 환타를 베게인줄 알고 베고 편하다고 함

### 급식 호/불호

#### <호>

1. 돼지국밥
2. 냉모밀
3. 피자
4. 떡꼬치
5. 딸기, 초코우유

#### <불호>

1. 생선요리
2. 라따뚜이 파스타
3. 스팸마요
4. 김치말이 국수

### 우리학년 축구짱?

- 1학년: 한재민  
2학년: 임재신, 이준하, 이연수



### 우리학년 농구짱?

- 1학년: 이상민, 장동현  
2학년: 윤영식, 박성배, 김준형, 백승협



###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표현한다면 혹은 성대모사?

- 조희경 쌤 - 이.제.알.겠.다  
백기곤 쌤 - 담.배.좀.제.발  
양혜리 쌤 - 잠.좀.잡.시.다  
이성문 쌤 - 불.안.났.는.데  
박경화 쌤 - 우.왕.후.후.훗  
서봉준 쌤 - 뭐.야.뭐.냐.고  
Mr.Pike - G.r.e.a.t  
김범두 쌤 - 마. 나와. 이리.  
이영진 쌤 - 크.록.스. 샌.들.  
김영만 쌤 - 수.행.그.만.즘

### 보인고 대표 아름다운 선생님은? 멋쟁이 선생님은?

#### 아름다운 선생님

- 문지혜 쌤  
조희경 쌤  
이보영 쌤  
이수진 쌤  
연제린 쌤



#### 멋쟁이 선생님

- 채기석 쌤  
손호준 쌤  
서봉준 쌤  
김흥민 쌤  
김영만 쌤





### 수능을 한마디 또는 한단어로 표현한다면?(내용-이름-별명)

- 올해의 연기대상 - 서리태
- 인생역전 - 배린이 400시간
- 재수를 향한 첫걸음 - 이재연
- 러시아인 롤릿 - 조수홍
- 운빨실력검 - 무명
- 다시 보라고 있는 것 - 조범구
- 응~ 니미래 - f1~f8까지
- 기승전결 - 이지성
- 연기 - say good bye to boin
- 딱히 별거 없음 - Despacito
- 국어 실화냐 - 무명
- 11월 모의고사 - 전민우
- 노력은 배신 한다 - 정동영
- 인생시작 - 만두잡이
- 도시락 먹는 날 - 유성현
- 논술 자극제 - 무명
- 새로운 고생길 - 김혜성
- 스케일 큰 모의고사 - 논리왕DH

### 수능이 끝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 집에서 자숙... - TSUMUGI
- 가채점 - 11135
- 논술공부 - 유채성
- 동면 - 무명
- 부모님이랑 맥주마시기 - 에바공치참치멸치
- 한강물 온도 체크 - 임형순
- 독서실 짐 빼기 - 무명
- 폰 바꾸기 - 권해수
- 수능 오답 - 이지성
- 드러누움 - 께께
- 살아서 교문을 걸어 나오기 - SAY GOOD-BYE TO BOIN
- 치킨을 먹었다 - 무명
- 참았던 방귀를 시원하게 뀌었습니다 - 무명
- 참회 - 정동영
- 지난날을 돌아보며 땅을 치며 후회하기 - 조수빈
- 배 - 그 - 윤가빈
- 이투스 2019 프리패스 - 김다움
- '일탈'하기 - 최원석
- 화장실에서 입 틀어막고 울기 - 에바참치
- 논술 최저 - 무명
- 재수학원 알아보기 - 무명
- 수능기도회를 갔다 - 정민성
- 수험표 할인 찾아보기 - 최세용
- 전 여친에게 연락 - 수능만점자

### 고3 수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요?

- 너무 잘나가는 아는 형 소식 듣기 - 서리태
- 열심히 노력해도 자신 뜻대로 되지 않는다 - 배린이 400시간
- 잠 - 무명
- youtube - 오종찬
- 지방들이 복제를 시작 한다 - 이재연
- 버린 수득 다시 줌(지진\*\*) - 김범식
- 최재만 선생님 - 무명
- 함만준 선생님의 딱밤 - 에바공치참치멸치
- 독서실에서 집에 걸어갈 때 - 임준
- 야자 쨌거 - 전지혁
- 화2 선택한거 - 익명
- 대학 찾아볼 때 - 이재연
- 현타가 심하다... - 존잘
- 수시 발표 기다리기 - 무명
- 짤짓 하는거 참기 - 무명
- 여자가 없다 - 무명
-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가끔씩 밀려오는 회의감 - 정동영
- 토요일에 학교 나오기 - 무명
- 친구들 수시 붙을 때 - JM
- 대학교 추합 기다리기 - 무명
- 인간관계 - 김경덕
- 보인고 등곳길 - 최세용
- 수능연기 - 정수민
- 끝없는 자습 - 재수각

### 대입을 앞둔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 '재필삼선' 이란다 - 서리태
- 정시를 목표로 하면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학 많이 힘들어.. - TSUMUGI
-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나중 되면 꼭 한두개 정도 써줘.. - 배린이 400시간
- 고3 모의고사<<<<<수능 - 11135
- 고등학교는 재수 포함 4년제야 - 무명
- 니네가 내 경쟁자다 - 김범식
- 후회없는 1년월! - 임준
- 예체능 절대 하지마 - 이어진
- 운이 절반이다 - 무명
- 탐구가 통수친다 - JM
- 따라해 예,바,참,치 - 예바참치

### 보인고, 이제 등교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학년때의 보인고와 지금의 보인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매 분기마다 등록금이 늘어 난다 - TSUMUGI
- 이제 머리 규정이 없다 - 배린이 400시간
- 1학년때보다 낙지덮밥이 덜 나옴 - 오종찬
- 운동장이 새로워짐 - 이재연
- 교감쌤 오랜 노력 끝에 승급 성공 - 보인박세
- 야자 잘 안 시키던데 - 무명
- 매점 가격이 오름 - 무명
- 야자가 짧게 느껴짐 - 정동영
- 자유로워짐 역시 자율형 사립고 - 무명

### 보인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도 적어주세요

- 차한결 선생님: 친형 같은 느낌으로 친근한 육을 해주신다.
- 서정민 선생님: 항상 사랑과 감사로 아이들을 보살피시며 그 모든 것이 '진심'으로 느껴진다
- 최재만 선생님: 독보적 캐릭터, 풍성한 스토리, 압도적 몰입감
- 김현열 선생님: 야자를 매일 안했다.
- 이승은 선생님: 고등학교의 시작과 끝!
- 박병준 선생님: 온화하고 인자하신 겉모습, 성격과 달리 수업 때는 음흉하신 색다른 면.
- 이성문 선생님: 분노의 뺨망이질이 너무 무서웠어요,
- 이영선 선생님: 수업시간에 먹는 만두가 얼마나 맛있게요~
- 김유수 선생님: 이유가 있나? 그냥 좋은거지

### 대학교 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 반수or전과or편입or대학원 준비
- CC
- 유럽 배낭여행
- 고시 PASS
- 가고나 말하자 | ...
- 자취
- 국방의 의무
- 학식 먹기
- 수험표 할인
- 술마시기
- 복싱,무에타이 같은 운동
- 12시간 숙면
- 공강날 놀러가기
- 미팅, 소개팅
- M.T
- 전공공부
- ♥

###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 수.능.연.기 - 3학년 일동

## 교내 백일장 대회

청명한 하늘 아래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9월, 보인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성황리에 교내 백일장 대회를 마쳤다. 그 중 2학년은 포근하게 가을이 무르익은 올림픽공원에서 대회를 진행했다.

2학년 백일장 대회는 '질투', '성적', '백일장', '노래' 중 한 주제를 택하여 글을 쓰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백일장의 주제가 아닌 색다른 주제가 제시되어서 그런지 학생들은 평소보다 글을 쓰는 데 골머리를 앓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백일장 대회에서 입상을 노리며 열심히 글을 쓰는 데에 정진했지만, 대회는 뒷전인 듯 농구 경기를 하거나 아름다운 가을 올림픽공원의 풍경에 취해 산책을 즐기는 학생들도 있었다. 아래는 이번 백일장대회 장원들의 작품이다.



# 매미의 꿈

3학년 11반 10번 박세준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

간지러움 참아내고  
비바람 버텨내며

영겁의 시간 지나  
마침내 날아가겠다

새파란 젊음과 함께  
드넓은 하늘 향해

뜨거운 열정과 함께  
눈부신 태양 향해

새로운 꿈을 안고  
마침내 날아가겠다

지난 시절  
나를 짓누르던  
숨막히는 땅을 뚫고  
성장하던  
나를 죄여왔던  
한 겹의 허물을 벗어

새벽의 차디찬 숨결을  
누구보다 기쁘게  
활기찬 날갯짓으로 감싸안으며

밝아올 아침을 향해  
마침내 날아가겠다

높푸른 나무 위에  
당당히 올라서서

어둠 속에서 굳게  
지켜왔던 나의 꿈을  
자랑하듯

세차게 물어보겠다  
마침내 날아가겠다





# 상

3학년 10반 25번 장성환

1.45에서 1.96. 이 숫자들을 통과하며 본체만한 이미지를 내 눈앞에 투영시킨다. 바깥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내 앞에 나타날 때 마다 가슴 한 편에서 미미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되면서도, 그것에 묘한 쾌감을 느끼기에 나는 계속해서 이미지들을 투영시킨다.

바깥의 것들은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 자만, 위선, 거짓, 정욕, 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와 함께 그것들을 관찰하며 얻는 작은 쾌락에 즐거워한다. 세상의 것에 속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때로는 그것들을 동경하며 나도 이 유리를 깨고 그것들과 함께하는 망상에 빠진다.

눈을 깜박였다. 아까와는 사뭇 다른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다시 내 앞에 투영되는 것들은 아까와 같은 것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까와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욱 유심히 관찰한다. 아무리 관찰해도 차이가 어디서부터 느껴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손가락을 가져와서 열심히 닦기 시작했다. 오래된 먼지를 털고, 투영되는 이미지들이 더욱 선명해지도록 깨끗히 닦는다. 하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느껴지는 차이는 커지면 갔다. 그러나 문득 바깥으로부터 투영되는 이미지에는 달라진 것이 없고 그것을 인식하는 나에게 차이가, 뭔가 달라진 것이 있을까, 걸레질을 그만두고 이 투명한 얇은 벽에 흐릿하게 비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

바깥 것들이 아닌 나의 모습의 이미지에 내 두 눈의 초점을 맞춘다. 어느새 투영된다는 바깥의 이미지들은 사라져가고, 나의 형체만 또렷이 남는다. 그러나, 아직 부족함을 느끼기에 나는 투영된다. 나의 이미지를 더욱 응시한다. 나의 이미지 뒤에서 느껴지는 맑은 은색 빛에 나는 깨달음을 얻고, 그 거울을 부숴버렸다. 그 부서진 틈을 통해 나는 밖으로 나갈 것이다.



## 코인 노래방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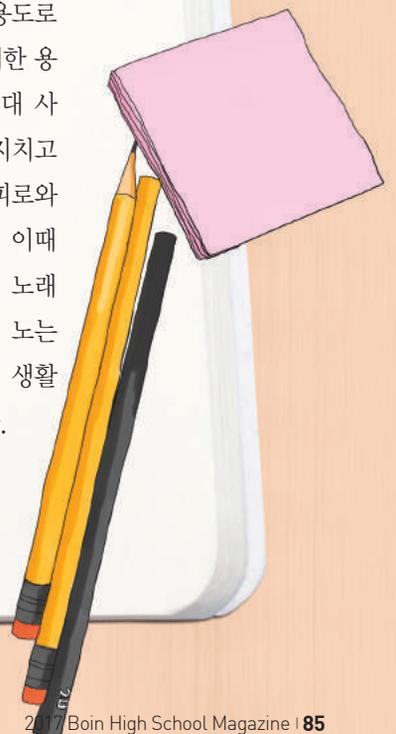
2학년 1반 27번 이우진

음악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다. 또 우리 중 대다수는 그런 음악을 즐기며 살아간다. 즐기는 방식은 다양하다. 단순히 인기차트에 올라오는 최신 곡들을 들을 수도 있는 반면 인기 차트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장르 혹은 가수의 노래를 찾아 들을 수도 있다. 또 어떤 노래를 선택했든 그것을 단지 감상하는 데에서 그칠 수도 있지만 직접 불러보는 등의 더 적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노래방’이 유행을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코인 노래방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과거보다 음악을 향유하는 층이 더 넓고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 앞서 언급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음악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나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며 자주 노래방에 가는 편이다. 때문에 난 노래방 매니아층으로써, 지금의 ‘코인 노래방 열풍’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다.

코인 노래방 열풍의 가장 큰 공신은 널리 보급된 음악일 것이다. 카세트 테이프를 음악을 듣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과 mp3를 통해 음악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들을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어떤 노래든 터치 몇 번이면 찾아 들을 수 있고 더 좋아진 이어폰과 헤드폰을 통해 보다 쾌적한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한 환경은 음악을 향유하는 계층을 넓혀 주었고 이에 따라 음악을 따라 불러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노래방 열풍의 원인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유행하는 노래의 변화이다. 지금의 K-POP 문화는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따라 부르기 쉽고 중독성 있는 노래가 지배적이다. 이에 더불어 최근 TV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힙합 문화도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힙합 노래들도 랩이 주가 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지언정 따라 부르기 어렵지는 않고 중독성 있는 곡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중독성 있고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따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불러 일으킨다. 때문에 아이돌 노래와 힙합 음악의 유행은 사람들의 발길을 노래방으로 돌린다.

마지막으로 꼽고 싶은 원인은 바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이다. 노래방은 친목 및 사교를 다지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지나치게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어른, 학생 할 것 없이 지치고 피로하게 된다.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때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노래방을 찾게 된다. 노래방에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시원하게 지르며 노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분명 어엿한 취미 생활이자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기 때문이다.





# 질투

2학년 2반 35번 정원호

나는 질투한다  
 이 세상 아주 조그만한 것들부터  
 너무 커서 이젠 아득해져 버린 것들까지도  
 나는 가끔 질투한다  
 내 가장 친한 친구들부터  
 나와는 정말 정말 관련없는  
 사람들까지도

나는 정말 가끔 질투한다  
 고요한 숲속의  
 나뭇가지 드리운 버드나무부터  
 봄비는 거리의  
 길게 늘어서 있는 자동차들까지도

나는 늘 질투한다  
 그리고 시기한다  
 그래야만 한다  
 내 마음 속 이상을 향해  
 더 의미있고, 나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부딪히는  
 인생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질투의 본질  
 나는 그것을 배반하지 않으며  
 배반할 이유도 없다

질투란 가면에 가려져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마음 속엔 증오라는  
 버려진 감정과  
 좌절이라는 것으로  
 무릎꿇게 만드는  
 무수한 시련들

나는 이제  
 본질적으로 질투한다  
 질투의 허상과 망령은 부수고  
 남은 선(善)의 결정체들을 향해



# 뽀루지

1학년 6반 4번 김규민

마음 한쪽에 너란  
붉은 꽃이 하나 피었다

켜져만가는 붉은 꽃을  
보려고 거울 앞을 서성인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꽃을 더듬어보기도 한다

꽃을 자꾸 만지다보니  
부끄러운지 노랗게 달아올랐다

터질듯 터지지않는  
조마조마한 우리 사이

그런데, 난 세수 안해  
너란 꽃을 마음에 키울란다

이 뽀루지같은 넌!





# 버스 33

1학년 2반 33번 하태윤



버스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흥미해져있던 내 아침에도 시동이 걸린다. 이른 아침, 차고지에서부터 버스를 타는 이유에서인지 버스에는 기사아저씨와 나, 둘 뿐이었다. 텅 빈 버스 안에서 비록 마주보고 있지는 않지만 긴 침묵 속에 덜컹 소리만 연달아나는것이 어색해 가방 안에서 오늘 일정표를 꺼내 읽었다. 일정표 안에는 국어, 수학, 음악, 국사 등 자주 보이는 글자들이 보였다. 반복되고 달라질 것 없는 일정표를 계속 보자니 속이 울렁거리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러는 도중에 버스 노선도가 유독 눈에 띄었다. 둘 다 보잘 것 없이 같은 일정을 반복하는 피비우스의 띠 같았다. 이런 자신이 부끄러운지 일정표는 누가 볼 세라 내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구깃구깃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버스는 애쓰고 있다는 것을, 파란 불에 멈춰보기도하고 빨간 불에 달려보기도하였지만 차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은 변하지않아 알아주지 못했을 뿐...

어느새 버스는 학교 앞 정류장에 이르렀다. 교실에는 마치 로봇처럼 표정이 굳어있는 아이들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도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 중얼거리며 오늘 일정대로 갈 곳을 되새겼다. "1교시는 2반역, 2교시는 음악실역, 3교시는 과학실역.." 아침에 탄 버스 탓인지 나도 모르게 역을 붙여 가며 말하고 있었다. 그러는 도중에 1교시를 시작하는 종이 울렸다. 수학 수업이 시작되고 칠판에 빼곡히 적힌 문제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셨다. "33번 나와서 풀어봐." 몸은 흠칫하였지만 마음은 아니었다. 분명 나를 부르시는 것 이었지만 낯설었다. 오늘따라 33번은 공장에서 찍어낸 버스 번호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난 나가기가 싫어졌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계처럼 몸이 저절로 움직여졌다. 1교시가 끝나고 나머지 7교시도 끝난 후에 나는 다음 일정을 위해 학교에서 석식을 먹고 버스 정류장에 가서 학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를 타고 교통카드를 찍었을 때 문득 나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무임승차였다는 사실을...



제1회 전국 청소년  
통일 문예작품 공모전

# 영원

2학년 3반 황윤섭



꽃은 시들고  
비는 그치고  
해는 저물 듯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는 싸웠다  
임금을 위해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싸웠다

그는 원했다  
임금의 평안을  
백성의 평화를  
나라의 안녕을 다른 무엇보다 원했다

우리는 싸웠다  
비참한 과거의 횡포로 엇갈려 버린 가족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지난 시간  
그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우리는 싸웠다

우리는 원했다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옛 시절을  
잠깐이나마 기억하는 옛 시절을  
우리는 언제나 원했다

그리운 그 얼굴들  
만나고 싶지만 가혹한 운명아래  
분단된 현실 속에서 오늘도 기도한다  
내일은 만나게 해달라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지만  
김시민 장군의 애국정신은 영원하다  
우리의 만남의 염원도 영원하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영원하다

꽃은 시들고  
비는 그치고  
해는 저문다지만  
우리의 마음과 김시민 장군의 정신은  
세상의 나이가 다할 때 까지  
영원할 것이다





제1회 전국 청소년  
통일 문예작품 공모전

# 나(김시민)의 연대기

2학년 3반 이대건

한때는 평화로운 시절도 있었다. 나 비록 구황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직되는데 이어 훈련원 판관도 사직했으나 그때는 분명 평화로운 시절이었을 것이다. 이제는 편히 쉬자고 이제는 가만히 살아가자고 생각했거늘 결국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리라. 그리고 내가 진주 판관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그 평화의 틀은 깨져버리고 말았다. 왜적들의 침입이었다. 그놈들은 어찌 이 나라를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인가. 제 나라 제 땅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찌 조선을 삼킨다 하여 그 욕심이 차겠는가. 하지만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하리오. 그저 이 상황에 눈 돌려 떠나갈 뿐이리라. 그리하여 성급히 진주목사인 이경과 함께 지리산으로 피신을 떠나고 말았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다. 나의 나라 우리들의 나라 조선이 왜적들의 횡포로 혼란한 상태이거늘 아무것도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역겨웠다. 그러던 중 목사인 이경이 병사하였다. 같이 피난 온 동지이거늘 그마저 떠나 버리면 나 어찌 하리오. 그러나 이때 다짐했으리라 이 내 한 몸 다 바쳐 이 나라를 구해낼 것이라고 만백성의 한을 담아 저들을 쫓아내리라고 먼저 간 나의 동지 이경의 뜻을 이어 해내고 말 것이라고. 그리하여 나는 대리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지리산을 내려왔다. 우선 민심을 안정시키고 피난 갔던 성민을 귀향시키도록 하였다. 자고로 국가란 왕이 있기 이전에 백성들이 있기에 그 왕이 존재하며, 그 국가가 존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모아 성을 지키기 위해 성을 수축하고 무기를 재정비하며, 군사체제를 갖추어 위협에 대비하였다. 그러던 중 왜적들의 침입이 시작되었다. 그놈들은 경남 사천을 시작으로 무서운 속도로 진주로 달려들었다. 저 멀리 다가오는 적병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희열이었으리라. 드디어 저들을 마주하는구나 드디어 나도 내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겠구나. 그들의 위세는 엄청났으나 나의 동지들 곤양 군수 이광악, 상주 판관 정기룡, 의병장 이달, 그리고 광재우까지 모두 그 힘을 모아 그들을 물리쳐 조선을 지켜내어 경남 고성 지방과 창원 지방을 수복해내었다. 허나 한때의 승리에

취해있어서는 그 무엇도 되지 않음이 분명할 터 그 위세를 몰아 의병장 김 면의 요청을 받아 지원병 1천 명을 이끌어 다시 한 번 왜적들을 격퇴시켰다. 그리고 비록 전쟁 도중이었지만 나는 결국 전주 목사의 자리에 앉았다. 아 이경이여 그대의 뜻을 이어 나 여기까지 왔노라 모두가 나를 치켜세우나 이 어찌 치켜세울만한 일이던가 한 나라 한 임금의 신하 된 도리로서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터 언제부터 이것이 치켜세울만한 일이던가. 내 마지막까지 그대의 뜻을 잊지 않고,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이리라. 그리하여 나는 왜적들의 2차 침입에 대비하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군세는 더욱 거대해져 무려 그들의 숫자는 2만에 달했으며, 그에 반해 우리들의 병력은 3800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닐 터 또한 그들과 우리들의 마음속 결심에 차이는 분명히 컸다. 그들은 지면 다시 쳐들어오면 되겠지만 우리는 막지 못하면 끝이리라. 그렇게 우리들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싸움은 치열했고, 노약자와 부녀자까지 남장을 하여 군사 위용을 보였다. 싸워라 나의 동지들이여 이 나라의 통합을 위해 싸워라 우리가 여기서 왜 함께 싸우겠는가. 우리는 한 민족 우리들은 모두 하나인 것이리라. 모두가 뭉치면 저 추잡한 왜놈의 무리들 또한 격퇴할 수 있으리라. 같이 가자 동지들이여! 그들의 위세는 과연 대단했다. 하지만 우리군 또한 그에 지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웠다. 아 그때였다. 전장 속에 한 발의 눈먼 탄환이 날아와 나의 이마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 이제 가는구나. 하지만 이제 되었노라 내 나라 조선을 구했으니 되었노라. 이제 이 나라는 관찮으리라. 나 비록 지금 떠나지만 보아라! 나의 동지들을 그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싸우고 있지 아니한가. 이 나라는 후에도 흠어지지 않고 함께 싸워 나갈 수 있으리라 언젠가 흠어진 다 하더라도 한민족의 정신으로 이 나라 모두가 하나 되어 다시 모이리라.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우리 민족만큼은 언제까지라도 여기에 남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리라.



교지편집부원 후기

올해 1년동안 교지를 작성한 친구들의 말 한마디

〈2학년〉

- 김준형 - 잡지사 내의 한 팀의 부장이 된 느낌이었다.
- 이승재 - 잡지사 내의 한 팀의 차장이 된 느낌이었다.
- 정원빈 - 전교생이 보는 교지를 제작해 보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매 활동마다 많은 의미를 남겨 좋았다.
- 이영택 - 글쓰기가 이렇게 쉬운줄 몰랐다.
- 양찬규 - 시간이 지나서 교지를 보며 지금을 추억할 것 같다.
- 유민재 - 학교를 대표하는 교지를 만드는 것이 보람차고 좋았다.
- 김성훈 - 학교의 행사를 가지고 나만의 기사를 써본 것이 재미있었다.
- 김승환 - 2년 동안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해서 뿌듯하다.
- 윤영식 - 학교에서 한 일을 기사로 써보니 기분이 색달랐다.
- 김영무 - 쉽게 경험해볼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서 보람찼다.
- 김도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람찬 활동을 해서 기쁘다.

〈1학년〉

- 유대건 - 내가 만든 글이 교지에 실리는 걸 보니 이보다 더 보람찰 수 없었다. 내년에도 열심히 뛰어나겠다.
- 전승원 - 교지를 만들면서 학교에 정이 생긴 것 같다.
- 신현민 - 교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기사를 쓰면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 김정현 - 우리학교를 대표해서 작성해야 했던 기사이기에 정말 큰 경험을 한 것 같고 또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된 것 같다.
- 신우엽 - 1년동안 나만의 기사를 써보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김종현 - 친구들과 함께 기사를 써나가며, 교지를 완성해서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이석희 - 1년동안 기사를 쓰는 것이 힘들었지만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